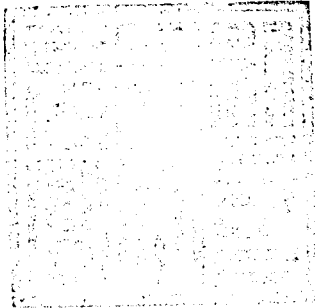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調查研究 - 政治

北韓의 政治体制와 肅清

研究執筆責任 兪完植



(略歷) 서울大學校 文理大 政治學科卒業 (1950)
亞細亞問題研究所 研究委員
梨大, 國防大學院 講師
서울新聞社 論說委員 (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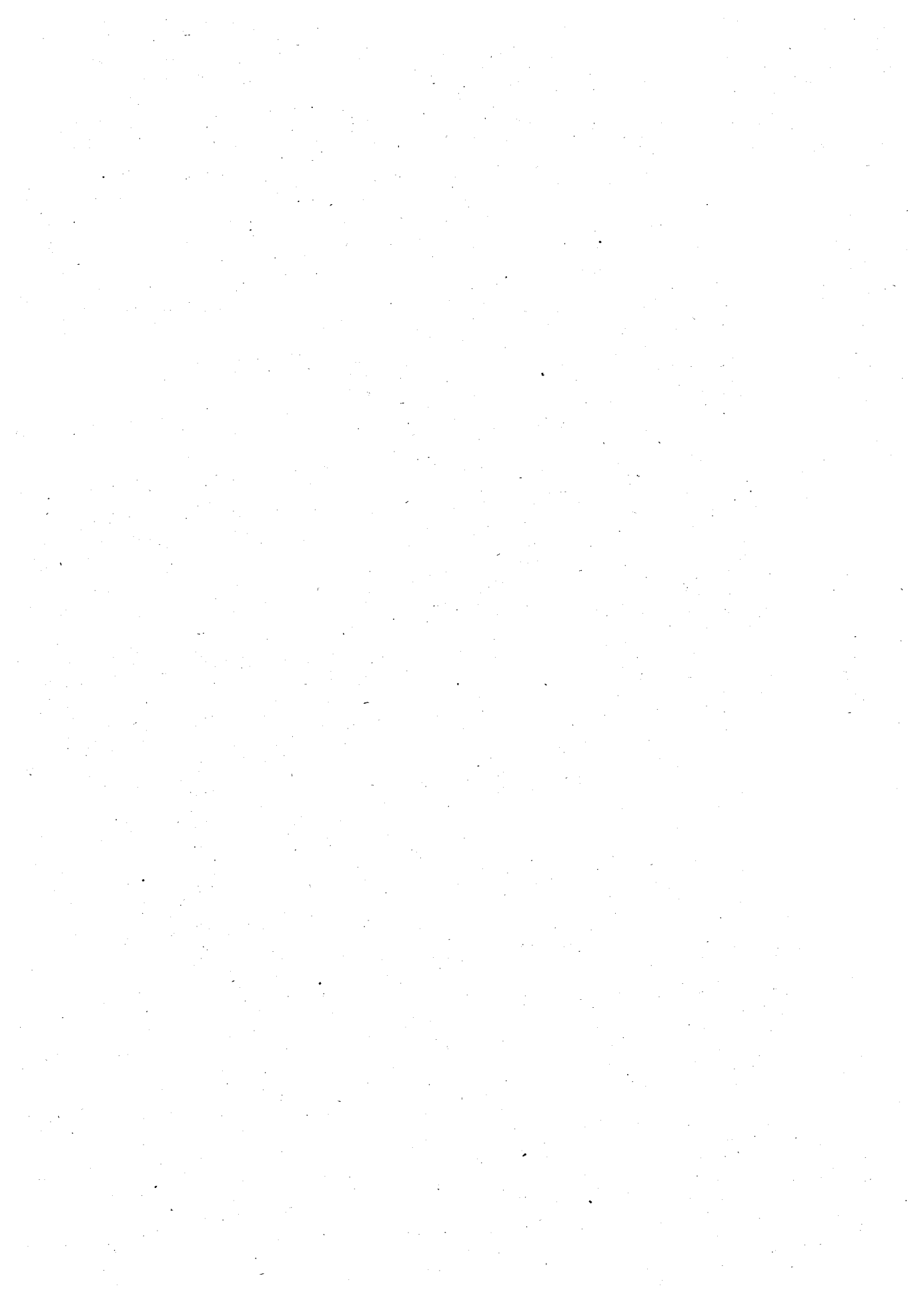
刊行責任 李啓熙 (調查研究室 補佐官)

151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序 論	3
第 1 部 北韓의 政治權力体制과 爾 淸	17
第 1 章 北韓의 權力構造	17
第 1 節 共產國家 權力構造에 관한 共產主義 命題	17
第 2 節 北韓 權力構造의 主要體系	24
第 2 章 北韓 權力構造의 變動過程과 그 要因	35
第 1 節 北韓 權力構造의 歷史的 變動過程	35
第 2 節 權力變動의 要因	42
第 3 章 北韓權力의 派閥과 金日成	49
第 1 節 共產黨 派閥鬭爭의 歷史的 傳統	49
第 2 節 3 大派閥과 金日成系	55
第 4 章 爾 淸의 序幕	73
第 1 節 金日成의 登場	73
第 2 節 玄俊赫의 暗殺事件	76
第 3 節 國內派 爾 淸의 開始	82



序 論

世界 共產諸國의 政治的 腐敗는 規模의 大小 및 深度의 差異가 있을뿐 共通의인 것으로 되고 있음을 歷史적으로 證明할 수 있다.

그 根本原因은 두말할 것도 없이 푸를레타리아獨裁權力이라고 하는 概念아래 政權의 民主主義的 交棒을 차단하고 있는데 있다.

選舉를 통하여 民主主義를 掠用하고 있는 民主主義國家에서는 腐敗이라는 概念자체가 存在하지 않는다.

共產國家들에서도 形式的 選舉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憲法에 의해서 最高主權機關이라고 하는 國家機構, 例컨대 蘇聯의 「最高소베트, 中共의 全國人民代表者會議, 北韓의 「最高人民會議」를 設立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獨裁黨인 共產黨에 從屬되고 있는만큼 三權分立主義에 立脚한 것은 결코 아니며, 따라서 民主主義的 政治의 徵表로 될 수 없는 것이다. 그같은 「最高主權機關」의 構成이 푸를레타리아獨裁의 概念에 의해서 支配되고 있는 것은 그 代議員 選舉가 共產黨의 徹底한 統制와 管理에 놓여짐으로써, 立候補 및 投票의 自由가 許容되지 않고, 事實上 共產黨이 指名하거나 다름없는 單一立候補者가 例外없이 當選되고 있는 事實이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政治權力의 構成가운데서는 權力을 掌握하고 있는 者가 國民의 信任을 얻어 選出될 수 없음은 勿論이고, 國民에게 責任을 질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政權을 쥐고 있는 者는 永久執權

을 하기 위해서 政治外的 手段, 즉 暴力과 威脅 및 彈壓과 迫害
와 같은 強制的 手段 에 의해서 政敵을 除去하기 마련이며, 이것이
곧 肅清의 形態로 露現된다.

共產國家에서 肅清의 動機는 다음 두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그 하나는 權力鬭爭이고 다른 하나는 政策對決과 思想論爭이다.
前者가 相對的으로 이데올로기를 보다 輕視하고 強權은 統治 手段으
로 보다 濫用하는 証左라면, 後者は 이데올로기를 相對的으로 重視
하는 向時에, 獨裁權力을 暴力이 아니라 政策的 合當性에 의해서
자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以上の 두가지 肅清의 動機는 大體로 不可分の 關係에
있는 것이 常例이다. 다시말해서 權力鬭爭의 動機와 政策對決 및
思想論爭의 動機에 의한 肅清을 엄밀히 線을 그어 区分하기는 어
렵다는 것이다. 다만 두가지 肅清의 動機가운데 어떤쪽에 치우쳤
는가의 差異가 있을 뿐이다.

蘇聯 및 東歐諸國의 非스탈린化 以後 狀況은 스탈린時代와는 달
리 權力鬭爭과 政策對決의 肅清動機가운데 後者の 比重이 높아지고
있다. 即, 이 事實은 一人獨裁下에서의 肅清은 權力鬭爭의 動機가
支配의인때 反해서, 이른바 集團指導制의 共產黨權力下에서는 政策對
決이 肅清의 主要動機로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겠다.

한편 共產國家에서의 肅清要因가운데 하나로 思想의 唯一性을 지
적해야 하겠다. 共產國家의 權力集團에서는 맑스·레닌主義 이외의

어떠한 다른 思想과 理論도 容納하지 않으며 思想의 統一이 要求되고 있다. 그러나 맑스主義와 레닌主義에 대한 解釋의 차이는 끊임없이 빛어졌으며, 그로 말미암아 右傾 또는 左傾의 誤謬가 論難되고 그레마다 肅清이 斷行되던 實인 것이다. 其實 맑스·레닌主義가 그대로 適用되고 있는 共產國家는 없는 것이며, 그 原因은 맑스主義가 19世紀 資本主義의 矛盾을 分析·批判한 社會思想이고, 또한 레닌의 理論은 러시아社會의 特殊性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現代의 各國 共產黨의 活動과 鬭爭에 있어서의 現實의 要求와는 乖離되지 않을 수 없으며 게다가 各國의 歷史的 特殊性和 各異한 社會的 條件에 普遍的 妥當性을 가질 수 없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共產各國에 있어서 맑스·레닌主義의 解釋을 에워싼 異見은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共產國家에서 獨裁權力을 掌握하고 있는 者에 의한 맑스·레닌主義의 解釋이 가장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며, 그 밖에 見解가 비록 가장 올바른 共產主義의 立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獨裁者의 見解와 어긋나면 獨裁權力에 대한 挑戰으로 보아짐으로써 肅清을 모면하기 어렵게 된다.

1950年代 後半以來의 非스탈린化 運動 가운데서 스탈린의 政策뿐만 아니라 그의 主要理論 卽, 맑스·레닌主義에 대한 解釋의 主要部分이 蘇聯共產黨의 새로운 指導者 및 유럽共產黨 指導者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批判되었음을 想起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스탈린에 의해서 理論的 誤謬를 犯했다는 理由로 肅清된 者는 헤아

릴 수 없이 많은데 뒤늦게 이들은 무고하게 被審됨 입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고, 事實으로 스탈린以後에 肅清되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復이라는 이름으로 名譽回復되었던 것이다.

北韓에서 金日成이 斷行한 肅清史는 共產諸國에 共通的 要因으로 說明할 수 있는 同時에 金日成權力的 構造的 性格과 金日成의 時代的 感覺과 個性 및 同權力的 對內外的 條件等의 特殊의 要因이 分析되지 않으면 안된다.

金日成은 共產諸國의 指導者 가운데 가장 스탈린의 統治方式과 執權手段 및 理論的 命題에 오래 執着함으로써 그로부터 逸脫하기를 싫어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이래까지의 統治方式과 權力維持의 手段과 方法이 스탈린主義의 으로 지나치게 굳어지고 있어, 그로부터는 逸脫은 權力的 危機를 自招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險難한 試練은 겪었다고 하더라도 金日成一人獨裁權力的 體制가 強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겠다.

스탈린의 金日成權力體制의 性格을 象徴해주는 것은 偶像化라고 할만큼의 北韓內에서의 金日成崇拜運動이다. 個人崇拜運動 역시 스탈린의 超權威主義的 統治手段의 한 側面이다. 蘇聯과 東歐諸國에서는 非스탈린化의 主要內容으로 個人崇拜運動을 排斥하였으나, 金日成은 非스탈린化가 北韓에 波及되는 것을 必死的으로 防止하면서 自身에 대한 崇拜運動을 계속시켰다 하기는 1956年 2月 蘇聯共產黨 第2次大會에서 흐르시초프에 의해서 스탈린 個人崇拜運動이 猛

烈히 批判되자 北韓에서도 金日成 崇拜運動을 한때 緩和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1956年 9月 延安派가 主動이된 反金日成運動을 彈壓한 이후 다시 金日成崇拜運動을 再燃시켰다.

個人崇拜運動은 共産党的 權力行使에 있어서 레닌의 原則이라고 하는 集團指導制를 否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個人의 地位를 事實上 党보다 上位에 올려놓은 것으로 이른바 「社會主義의 法治」가 유린되는 것은 물론이고, 共産党權力行使의 規範마저도 無視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個人崇拜運動下에서는 崇拜의 對象인 獨裁者는 党으로부터의 規制도 받지 않는 無制限한 權力으로서 政治를 壟斷하는 同時에 그 權力和 政策에 妨害가 되고 威脅이 된다고 보여지는 者들을 恣意로 抑壓하고 肅清하는 것이다. 스탈린의 政治가 그 典型이었음은 스탈린死後 蘇聯共産党을 비롯한 各國共産党에서 指摘되었다.

오늘의 北韓에서는 金日成崇拜運動이 스탈린의 그것을 필선 능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唯一思想體系」 또는 金日成에 대한 「絶對的이고 無條件的 服從과 忠誠」이라는 말은 스탈린의 경우에도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金日成을 「목숨으로 守護하자」는 口號가 새겨진 깃발을 北韓의 모든 幹部職 勞動黨員들이 義務적으로 달고 다니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따위는 스탈린時代의 蘇聯에는 없었던 現象이다. 뿐만 아니라 北韓에서는 党에 대한 忠誠보다도 金日成에 대한 忠誠을 보다 더 強調하고 있고 또한 北韓의 歷史를 党이 아니라 金日成이 指導的 歷史라고 主張하고 있거니와, 金日成이

있고 黨이 있다는 식으로 黨을 金日成個人에게 從屬시키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는 共產黨의 立場 및 共產黨의 指導思想이라고 하는 맑스·레닌主義의 理論과 命題를 가지고 獨裁者 金日成과 對立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으며 金日成에 대한 育從만이 強要될 뿐인 것이다. 北韓의 지난 廢清史는 金日成個人崇拜運動 및 이른바 金日成思想에 대한 批判的 或은 消極的 態度가 어떻게 殘酷한 報復을 招來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北韓에서 金日成이 잇따라 斷行한 廢清史의 特殊性은 北韓權力의 成立過程과 權力의 派閥的 構造에 起因한다.

北韓의 金日成權力은 예컨대 유고슬로비아의 티토, 中共의 毛沢東 또는 越盟의 胡志明처럼 스스로의 투쟁결과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蘇聯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며, 게다가 金日成의 權威와 領導力은 國內 共產主義者 및 海外에서 共產主義運動에 가담했다가 歸國한 共產主義者들에 의해서 認定되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은 北韓權力을 에 워산 派閥間的 투쟁이 宿命的인 것으로 처음부터 胚胎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金日成과 그 一派는 자체의 權力이 안고 있는 이같은 脆弱의 要因을 克服하기 위해서 執權한 첫날부터 「金日成將軍凱旋歡迎大會」를 開催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여¹⁾ 金日成의 이른바 抗日鬪爭史를 날조함으로써 그에 대한 崇拜運動을 展開케 했던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의 經歷과 鬪爭의 業績을 偽造的 崇拜運動은 他派의 共產主義 指導者들에게는 가소로운 欺瞞劇으로 밖에 대해지지

알 수 없었으며, 蘇聯軍政의 強力한 庇護를 받는 金日成과 그
一派는 그의 權威을 거부하는 他派를 強權과 破廉恥한 謀略으로
抑在할 수 밖에 없었다. 其實 共產主義運動의 經歷과 貫錄으로
본다면 蘇聯에서 地方黨組織의 幹部職까지 지낸 者들 및 延宅派라
고 불리어 졌거니와 中國共產黨에서 活動하는 동시에 「獨立同盟」
이라는 獨立運動의 團體를 오래동안 가지고 있다가 北韓으로 歸國
한 者들, 또한 國內에서 日帝와 싸우다가 8.15 解放을 맞이한 이
른바 國內派 共產主義 指導者들과 比較한다면 金日成의 存在는 지극
히 이색한 形편이었다.

이리하여 蘇聯의 庇護로 權力을 쥐고 있는 金日成一派와 反對派
間에는 始終 權力을 에워싼 暗闘가 그치지 않았으며 苛酷한 숙청
으로만 그때그때의 權力의 危機가 收拾되곤 했던 것이다.

한편 金日成의 隱情史는 北韓의 對中·蘇關係 및 中·蘇紛爭이라
고 하는 要因에 影響을 받음으로써 크게 左右되지 않을 수 없었
다. 金日成權力이 蘇聯에 의해서 주어졌던 만큼 蘇聯共產黨 및
政府의 뜻에 反해서 權力을 恣意로 再編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적
어도 1950年代 前半期까지의 事情이었고 6.25 動亂에서 中共이 北
韓편에 參戰한 것을 起點으로 中共의 對北韓 影響력이 거의 蘇聯
과 對等하게 됨으로써 中共을 度外視하고 北韓權力層에 대한 숙청
을 斷行할 수 없었으며, 더우기 中共系인 延安派는 蘇聯派와 함께
金日成權力의 要職을 按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中蘇로부터
의 影響과 숙청에 대한 隱然한 牽制는 적어도 50年代 後半期까지

매우 強力했다.

60年代에 들어 中·蘇紛爭이 마침내 表面化되고 北韓을 에워싼 中·蘇兩國의 主導權競爭에 隱然히 또는 公開의으로 치열하게 展開되었는데 金日成集團은 그 가운데서 자체의 權力問題에 대한 中·蘇로부터의 影響力과 牽制를 다같이 大体로 相殺할 수 있었고, 이리하여 金日成權力問題에 대한 自律性은 그 어느때보다도 增大되었다. 이러한 与件에서는 金日成의 處境이 보다 大担해지고 橫暴해 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60年代에는 이미 組織的 反對派는 거의다 除去되고 있었기 때문에 50年代와 같은 大規模的 肅清事件은 發生하지 않았다.

이 같은 金日成權力的 对内外的 与件은 70年代의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60年代의 特殊性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點은 62年 10月 쿠바危機를 契機로 北韓이 對中蘇關係에서 中立的 立場으로 부터 中共에 偏向하기에 이르고 그의 反作用으로 對蘇關係가 惡化하여 이러한 三者關係가 1965年 2月 코시긴蘇聯首相의 平壤訪問까지 계속되었는데 同期間에 北韓權力에 대한 中共의 影響力이 증대한데 反해서, 蘇聯의 影響力은 減退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狀況속에서는 北韓權力에서 金日成이 蘇聯派들 牽制 내지 去勢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蘇聯과 內通하는 이른바 現代修正主義勢力의 抬頭을 極力 抑制했던 것이다. 當時 北韓內에서의 反現代修正主義運動은 그 徵表이다.

興味있는 일은 北韓의 中共과의 密着關係가 蘇聯과의 關係改善으로 崩壞된 後, 1966年 10月 労働党代表者会에서 金日成은 中共을 間接적으로 가리켜 「大國主義」라고 비난하고 지난 時期에 中共이 北韓에 대하여 內政干渉을 했다고 示唆한 사실이다. ²⁾ 즉 60年代 前半期에 中共은 金日成權力에 대한 介入을 包含하여 對外政策의 問題들에 金日成의 뜻에 反한 要求를 했다고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金日成集團이 對蘇關係를 改善함으로써 對中共關係가 緊張된 60年代 後半期에는 60年代의 前半期와는 反對로 金日成權力에 대한 蘇聯의 影響력이 增大한데 대해서 中共의 影響력이 減退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었다. 延安派의 唯一한 殘存者이고, 큰 實權을 쥐고 있던 金昌滿이 60年代 後半期에 權力으로 부터 除去되고 蘇聯派의 代表的 人物이라고 할 수 있는 南日이 副首相과 鐵道相을 兼任하게 된 것은 그 証左라고 보겠다.

그러나 金日成은 60年代 前半期の 經驗 즉 對中共 偏向의 自身이 權力과 政策에 대한 中共으로부터의 달갑지 않은 干渉을 招來했다는 사실과 또한 50年代에 스탈린主義가 蘇聯共産黨에 의해서 批判된 이후, 金日成 個人崇拜運動을 비롯한 스탈린主義的 北韓權力의 體質을 蘇聯에 의해서 變化를 促求받은 事實을 거울삼아, 蘇聯과 關係를 改善하기 위한 努力을 傾往하면서도, 金日成權力에 대한 蘇聯의 干渉을 意識적으로 警戒하고 회피하고자 tried.

1963年 10月 28日字 北韓労働党機關紙 「로동신문」은 50年代

後半期에 蘇聯이 金日成集團의 權力과 政策을 어떻게 干涉했는가를 신랄하게 暴論했다. 3) 同紙는 蘇聯이 北韓의 5個年計劃(1957~61)을 機械工業을 發展시키기로 작성되었다고 하여 反對했다고 지적하면서, 蘇聯의 共產諸國 經濟統合案은 다른 共產國家들의 經濟를 蘇聯經濟에 계속시키려는 것이 라는等 經濟政策問題를 에워싼 蘇聯과의 對立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蘇聯의 現代修正主義政權은 個人崇拜運動을 반대한다는 理由로 北韓에 壓力을 加하고, 나아가서 北韓의 現政權을 現代修正主義政權으로 바꾸려고까지 꾀했다고 비난했다.

이리하여 金日成과 그 一派는 蘇聯과의 關係改善에 들어서면서 自主路線을 宣言했으며 4) 이어 思想에 있어서의 主体性이라는 표방 아래 政治의 自由 經濟의 自主 國防의 自衛를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의 金日成의 「唯一思想體系」와 背景은 60年代의 이러한 對中·蘇關係의 推移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金日成의 自主路線과 主体思想이라고 하는 것은 侵略的 統一戰線 및 獨自的 經濟政策을 中·蘇를 包含한 外部로부터의 牽制를 물리치고 堅持해 나가겠다는 面과 아울러, 어떠한 對中蘇關係의 狀況가운데서도 金日成權力에 대한 他律的 規制가 加해져서는 안된다는 立場을 反映하고 있다고 보겠다. 어쨌든 金日成의 이 같은 布石은 그의 權力維持와 反對派를 任意로 除去하는 데는 有效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金日成의 個性은 그의 簡曆史를 特徵짓고 있는 하나의 要因이라고 보겠다. 金日成은 英雄主義와 權力欲에 넘쳐있고 權力의 維

持를 위해서는 지극히 殘忍하고 苛酷한 手法을 使用하기를 서슴치 않을 뿐만 아니라 疑心이 많다는 것이 그의 側近에 있었던 者들의 証言이다. 5) 또한 主要攻擊의 目標로 定한 政敵을 除去하는데 他派와 聯合하고, 다시 이때까지 提携했던 他派를 다른派와 協力해서 除去하는 따위의 爾清의 術數와 方法에 能하다고 보여지고 있다. 예컨대 朴憲永 등의 兩勞黨系 指導人物을 爾清하는데 蘇聯派의 巨頭 朴昌玉을 앞세웠으며, 그러나 金日成은 朴昌玉의 實權이 肥大해짐으로써 그것이 自身の 權力에 威脅이 된다고 보자, 그를 延安派의 指導極人物인 金昌滿을 내세움으로써 朴昌玉을 除去케 하였고, 金昌滿 역시 그 功勞로 黨副委員長에 登用되었으나 結局 爾清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金日成에 대한 狂의인 崇拜運動은 金日成의 個性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1956年 2月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에서 스탈린이 신랄하게 批判된 이후 蘇聯과 東歐諸國에서 個人崇拜運動이 퇴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唯獨 北韓에서의 金日成崇拜運動만은 그 圈外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金日成權力의 維持에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度에 지나친 同崇拜運動은 도리어 金日成의 對內外的 威信을 毀損시키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金日成에 對한 狂의 崇拜運動은 蘇聯을 비롯한 共產諸國에서도 매우 못마땅하게 對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對內的으로도 惡證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形편이다. 狀況이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金日成 自信은 自己에 대한 崇拜運動이 갖는 效果와 對內外的 影響을 分析 評價할 생각

조차 하지 않고 滿足感속에서 헤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의 個性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70年代에 들어 金日成思想을 金日成主義로 昇格시킴으로써, 이를 맑스·레닌主義라고 하는 世界各國 共產黨의 普遍的 指導理念과 對等化시키고 있는 것은 理性있는 處事라고 볼 수 없으며, 其實 이러한 主張은 國際적으로 전혀 說得力을 갖지 못함으로서 孤立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學者가 指摘한 바와 같이 北韓의 共產主義는 이제 思想이 아니라 金日成宗教로 轉락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金日成의 傍若無人格인 獨尊과 그에 대한 盲從의 強要는 暴惡한 統治方式 및 肅清과 表裏의 關係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實際로 金日成의 神格化에 대한 어떠한 批判과 忠告도 反動分子로 몰릴뿐 容納되지 않는 形편이다.

以上과 같은 金日成權力의 體質과 肅清의 歷史 및 金日成의 永久執權 野欲으로 비추어 反對派에 對한 肅清은 中斷됨이 없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組織的 反對派가 모두 除去된 60年代 이후에도 肅清이 隨時로 斷行된 事實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將來의 事情을 示唆해 주고 있다. 즉, 組織的 反對派闕이 肅清된 이후에는 自派內에서 性向이 못마땅하거나 疑心스럽다고 보여진 者를 골라 肅清의 對象에 올렸으며, 한편 金日成이 내세운 政策에 덜 積極的이고 或은 批判的이라고 보여지는 者들을 假借없이 肅清했다. 1967年 金日成과 同系이지만 直系가

아닌 朴金哲과 또한 李孝淳等에 대한 爾淸 및 1969年 金日成直系이고, 軍爭戰略에서 兇見을 가진 金昌奉, 崔光等 北韓軍首腦部の 爾淸은 그 代表的 事件이다.

한편 金日成의 爾淸은 北韓權力의 中核層에서만 實施된 것이 아니라 解放直後 愛國 民主人士들이 迫害를 받은 事實과 또한 北韓 勞動黨의 「友黨」이라고 指稱된 天道敎育友黨과 北朝鮮民主黨의 指導級人士들이 이런저런 理由로 彈壓을 당한 事實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와 함께 北韓 勞動黨의 一般黨員들을 包含한 各界, 各層의 사람들이 「党性檢討」나 「中央黨集中指導事業」이니 하는 이름 아래 勞動黨 및 金日成權力에 對한 忠誠心을 調査받았으며 그때마다 不安과 恐怖의 분위기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迫害을 受면하지 못했던 것이나 그 動機는 두가지로 大別할 수 있었다. 그 하나는 北韓權力의 中核層에 대한 爾淸의 餘波로서 金日成反對派와의 直接的 및 間接的인 關聯者 및 影響을 받았다고 看做된 者들을 摘發하는데 있었고, 다른 하나는 金日成權力의 大衆的 基礎을 強化하기 위한 目的이었다. 이 가운데 前者를 보다 重要視하였고 그 頻度도 잦았다.

끝으로 北韓의 權力鬭爭과 앞으로 展開될 爾淸의 殘相이 韓國의 安保 및 統一問題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 것인가를 바르게 分析, 批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重要한 研究課題로 提起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中心問題는 金日成이 죽을때 까지 그의 權力을 維持할 수 있을 것이다. 維持하게 된다면 어떠한 權力鬭爭과 그로 말미암은 腐消을 거쳐 金日成權力의 構造가 어떻게 變化될 것인가이며 다른 하나는 金日成의 後繼者가 어떠한 經緯를 밟아 누구로 落着될 것인가, 그리고 그 後繼權力은 어떠한 構造로써 南北關係 및 統一政策에 어떠한 性向을 가질 것인가이다.

金日成權力의 安定性과 連續性問題는 金日成의 리더쉽 및 權力維持의 方法과 함께 對中蘇關係를 비롯한 國際關係의 變化, 그리고 經濟政策을 비롯한 對內政策의 成敗 등의 主客觀的 要因에 의해서 左右된다고 보겠다. 따라서 이에 관한 判斷은 對內外에 걸친 多角的이고 深度있는 分析評價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金日成의 後繼者 問題는 그의 長男 金正一에게 政權이 넘어갈 것이 거의 確實視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그 後遺症이 어떠한 것인지도 輕視할 수 없는 問題로 提起되어야 하겠고, 한편 金日成以後의 北韓政權이 從前처럼 一人獨裁의 權力構造로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集團指導制로 바뀌어질 것인지의 如何는 尙政權의 南北關係 및 統一政策을 豫測하는데 基礎的 研究課題로 되어야 할 것이다.

勿論 本研究에서는 金日成의 腐消史가 中心이 되는 만큼, 金日成以後의 北韓權力의 問題는 극히 制限된 範圍內에서만 言及하게 될 것이다.

第 1 部 北韓의 政治權力體制와 肅淸

第 1 章 北韓의 權力構造

第 1 節 共產國家 權力構造에 관한 共產主義 命題

金日成의 肅淸이 北韓의 權力構造에 要因이 있음을 이미 言及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權力構造란 共產主義의 基本原理에 立脚한 것을 말한다. 金日成이 北韓의 權力體制를 任意로 손질할 수 있음은 勿論이지만 거기에는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概念 및 맑스·레닌主義의 命題와 또한 蘇聯의 權力政治의 歷史와 背馳되어서는 안된다는 限界가 있는 것이다. 萬一 金日成이 어떠한 動機에서든 이 같은 限界와 規範을 벗어난다면 그는 共產主義者로서의 存在價值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싫든 共產國家에 共通的인 權力構造의 틀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共產國家 權力構造에 관한 共產主義 命題를 살펴보는 것은 金日成 肅淸史의 本質과 背景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共產國家라고 하더라도 蘇聯의 소비에트(Soviet)型 國家와 第 2 次大戰後에 태어난 北韓을 포함한 소위 人民民主主義國家의 權力形態 사이에는 相異點이 있었고 따라서 兩者의 權力構造는 同一하지 않았다.

그러나 北韓은 人民民主主義革命의 第1段階는 産業의 國有化 및 土地改革 등에 의해서 1947年頃に 끝나고, 이후 人民民主主義革命의 第2段階 즉 社會主義革命에 들어가 1957~58年頃에는 社會主義 基礎의 구축을 의미하는 工業과 農業을 비롯한 經濟의 全分野에 걸친 生産手段의 社會化가 끝나고 權力形態도 그에 相應하게 변화 되었다고 宣稱했던 만큼, 50年代 後半期이래 北韓의 權力構造는 소비에트型과 本質上 同一하다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주로 소비에트型 國家를 意중에 둔 레닌과 스탈린의 共產國家 權力構造에 관한 理論과 命題는 北韓에도 適用될 수 있다.

共產國家 權力構造에 관한 共產主義의 命題 가운데 가장 基本的인 點은 共產黨이 國家機關 및 모든 公共團體에 대한, 指導的 核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共產黨은 共產國家의 모든 權力의 源頭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國家機關은 共產黨의 權力에 의해서 決定된 政策을 執行하는데 있어서 共產黨으로부터 받은 權力을 行使하는데 不過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共產國家의 權力을 機構의 形式으로 보면 中央의 指導力으로서의 共產黨과 지릿대 및 調帶 (belt)의 網狀組織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社會的, 政治的인 權力組織이다. 그리고 이 網狀組織을 여러 소비에트 (諸國家機構), 勞動組合, 青年同盟, 文化組織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勤勞者層 國民의 現在 및 將來의 利益과 目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政策과 機能은 이것들을 통해서 발표되고, 실시되고, 統制된다고 말

하였다. 6)

요컨대 權力의 本源 乃至 中核으로서의 共産黨은 그의 政策을 國家機關들의 黨外組織을 통해서 집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共産黨의 無制限의인 權力, 그리고 國民으로 부터 授任되지 않은 그 獨裁權力이 暴惡한 1人에 掌握되었을 때, 自身の 權力을 유지, 강화하는 이론적 方法로 이용하며 暴政과 또한 肅清을 恣行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갖게 되는 것이다.

北韓當局도 「共和國(北韓)의 國家機關은 우리나라의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의 有機的 構成部分을 이루고 있으며 이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 가운데 指導的 力量으로 되고 있는 朝鮮勞動黨과 政策을 執行하는 벨트(belt)의 役割을 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 가운데 벨트의 役割은 國家機關뿐만 아니라 社會組織도 이것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7)

共産國家의 이러한 共産黨 中心의 權力構造는 소위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不可避論에 의해서 合理心되고 있다. 즉 共産黨이 이미 權力을 掌握한 共産主義社會에서도 打倒된 資本家를 비롯한 反革命階級은 장기에 걸쳐 집요하게 反革命을 시도하기 때문에 階級鬭爭은 中止되지 않음으로 프롤레타리아 獨裁가 필요하며, 한편 共産國家는 궁극적으로 階級이 없는 共産主義를 건설하는 것이 目的이기 때문에 낡은 國家機構(革命以前의 國家機構)는 철저히 破壞되고 노동계급의 單一的이고 無制限한 支配權力이 樹立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시 프롤레타리아 獨裁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스탈린은 나의 著書「레닌主義의 諸問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푸로레타리아獨裁는 政治權力을 그의 손에 掌握한 푸로레타리아가 敗北는 하였으나 絶滅되어 있지 않은 불조아지에 대해서, 또 소멸되지 않고 反抗을 도리어 強化하고 있는 불조아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階級鬭爭」이라고 했으며 「革命에 의해서 낡은 國家機構를 철저히 粉碎하고 소비에트權力을 樹立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함으로써 푸로레타리아 또는 불조아지와 小불조아지의 協調主義者들의 非푸로레타리아大衆에 대한 支配 및 權威의 영향력을 극각적으로 물리쳐 버려야 한다」고 말하였다.⁸⁾

물론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푸로레타리아獨裁란 共產黨 또는 共產黨指導層의 極少數, 나아가서 1人獨裁를 階級的 獨裁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事實 蘇聯을 비롯한 共產國家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勞動階級の 政治權力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켄젠이 말한바와 같이 蘇聯에서는 産業勞動階級の 獨裁란 말뿐이고, 實은 共產黨의 獨裁, 아니 極少數의 獨裁, 아니 領首의 獨裁라고 지적한바 있다.

맑스主義의 正統派라고 自處한 獨逸社會民主黨의 카우츠키트 쏘베트.러시아를 가리켜 領首의 獨裁라고 비난했으며, 이 사실은 레닌은 그의 論文「共產主義에 있어서의 左翼小兒病」에서 지적하고 반격을 가하고 있다.

共產國家의 權力이 푸로레타리아獨裁權力이냐 아니냐는 問題는

共産國家의 權力構造의 本質 및 性格이 어떤 것이냐, 즉 民主的
要素가 있느냐의 與否를 究明하는데 基本的인 問題提제가 되고, 현
편 北韓을 포함한 共産國家의 肅清史를 分析, 評價하는데 있어서도
基本的인 立脚點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共産黨에 無制限한 權力을 부여해야 하고 또 同權力의 유
지와 行使를 위해서는 暴力을 비롯한 어떠한 強制手段도 正當化시
키고 있는 根拠로 資本家階級의 反革命攻勢를 彈壓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들고 있으나 蘇聯과 그리고 北韓을 포함한 共産
諸國의 歷史와 現實은 그러한 主張에 虛構에 지나지 않음을 立証
해 주고 있다. 共産國家에서 獨裁와 彈壓과 또한 肅清의 主要對象은 資本家
階級이 아니라 勞働者들을 비롯하여 社會階級이 아닌 知識層과 文
化人 등의 各界 各層에 이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共産黨指導層
이 가장 主要한 肅清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獨裁權力을 위지, 강화하기 위한 彈壓과 肅清을 푸롤레타
리아獨裁라는 이름을 빌려 恣行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共産主義者들은 푸롤레타리아獨裁를 푸롤레타리아民主主義라고 主張
함으로써 이를 불조아 民主主義와 對峙시키고 있으나 앞에서 지적
한바와 같이 階級의 獨裁란 한낱 虛構이고, 黨의 獨裁, 나아가서
極少數의 獨裁, 더 나아가서 黨領袖의 獨裁인만큼 푸롤레타리아獨裁
란 허무맹랑한 主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共産國家가운데서도 北韓의 金日成集團은 이른바 党内民主主義는
물론이고 集團指導制조차도 事實上 否定함으로써 가장 철저한

金日成一人獨裁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共產國家보다도 北韓에서는 人權이 가혹하게 유린되고, 政治的 및 思想的 彈壓이 極甚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橫暴한 肅清으로 表現되고 있는 것이다.

스탈린은 1930年代에 社會主義가 進展될수록 階級鬭爭은 緩和되는 것이 아니라 反對로 強化된다고 主張함으로써 政治, 社會的 恐怖분위기를 새로히 造成하였고, 그 가운데서 有名한 예초프스키나 大飢饉事件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스탈린의 새로운 理論은 그의 獨裁에 威脅이 되는 政治勢力과 個人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除去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때 秘密警察의 기능이 一層 強化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北韓의 金日成은 이상의 스탈린의 理論이 스탈린以後 蘇聯 共產黨의 새로운 指導者에 의해서 批判되었을에도 不拘하고, 그를 그의 獨裁權力の 維持, 強化와 政敵의 肅清에 最大限으로 導入해 왔다.

다음 共產黨과 國家機關의 關係를 더 具體적으로 보면, 共產黨의 權力과 國家機關이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國家機關은 이른바 푸를레타리아 獨裁體系의 有機的인 主要構成部分이며 푸를레타리아獨裁를 直接 표현하고 國家面에서 黨과 근로자를 連結시키는 大衆組織이라고 規定하고 있거니와⁹⁾ 共產國家機關은 그 國民과 外部에 대하여 外形上的 唯一한 權力構造를 이루고 있으며 그 國民은 法律上的 權力問題에 있어서 共產黨이 아니라 國家機關과 直接的 關係를 맺게 된다.

즉 共産黨이 國家機關을 內的으로 嚮導하고, 推進시키는 中核으로 되고 있지만 그 國民 및 外部에 대해서는 權力의 全體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共産黨과 國家機關사이의 權力關係의 基本的 形態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共産黨은 첫째, 國家機關의 要員의 詮衡, 발탁 및 配置, 둘째, 國家機關 活動의 性格 및 方向을 정하는 指導的 指示 세째, 國家機關의 活動과 그 活動點檢에 대한 援助이다.¹⁰⁾

또한 레닌의 다음과 같은 말은 共産國家 權力構造에 있어서, 특히 權力과 國民사이의 關係에 있어서의 共産黨과 國家機關의 關係를 더욱 明白히 밝혀주고 있다. 레닌은 「共産黨은 無產階級의 獨裁를 實現한다. 그러나 이것은 國家權力과는 別個로 國家權力 없이 無產階級의 獨裁를 실현하고 있다던가, 黨이 國家機關을 통하지 않고 國家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黨은 權力의 中核이다. 그러나 黨은 國家權力과 同一한 것이 아니며, 또 同一할 수도 없다」고 말하였다.¹¹⁾

한편 共産主義에서는 國家機關과 共産黨의 權力關係를 形体와 그 中核의 關係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兩者의 有機性이 요구되고 그 結果 兩者의 頂上에 각각 오르고 있는 自然人的 一致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統治하는 黨으로서 우리는 소비에트(國家機構)의 上層을 黨의 上層과 一致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兩者는 蘇聯에서 一致되어 있고 將來에도 그러할 것이다.¹²⁾

共産主義의 이같은 命題는 北韓에서 그대로 實現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命題를 金日成이 黨과 國家機構를 한손에 掌握함으로써 그의 一人獨裁權力을 유지, 강화하는데 最大限으로 利用하고 있으며, 그에 挑戰하는 反對勢力을 抑壓, 肅清하는데 하나의 根拠로 삼고 있다.

第2節 北韓權力構造의 主要體系

앞에서 說明한 共産主義 命題에 따라 北韓의 權力構造는 執權黨인 朝鮮勞動黨이 모든 權力의 中核이고 源泉體로 되고 있으며, 다음에 同黨의 政治路線과 政策을 執行하며 獨裁權力을 直接 表現하는 黨外機構로서 國家機關이 있다. 이밖에 黨外組織으로서 職業同盟,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 農業勤勞者同盟, 女性同盟 등은 勞動黨의 政策을 民衆에게 接近시키고 그 執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各自 獨特한 役割을 하고 있다. 國家機關을 비롯한 以上の 社會團體는 勞動黨의 政策을 民衆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傳導的 役割을 한다고 하여 黨의 傳導體라고 부르고 있다.

國家機關이라고 함은 內閣 및 地方人民委員會, 檢察과 裁判所 등 黨政策을 權力으로 집행하는 조직이며, 職業同盟과 農業勤勞者同盟 등은 生産面과 勤勞生活에서 勞動者와 農民을 各各 黨과 連結시키는 大衆組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勞動黨이 世代를 共産主義者로 教育하고 勞動黨員의 豫備를 만들어내는 것

을 使命으로 하는 勞動者 農民의 青年大衆 組織이라고 한다.

또한 女性同盟은 모든 女性들을 勞動党的 政策을 실현하는데 積極的으로 協調하게끔 組織, 動員하는 使命이 주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社会團體가 있으나 모두가 北韓 權力構造의 補充的 役割을 하는데 불과하고 權力構造의 基本體系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北韓 權力構造의 主要體系는 勞動党和 國家機關이 이루고 있다.

1. 勞動党

北韓의 勞動党은 北韓 權力構造의 中核으로 되고 있는 동시에 北韓 統治組織에 있어서 最高指導者로서의 地位를 차지하고 있다.

스탈린은 「푸롤레타리아獨裁 國家에 있어서 党이 最高指導者로 表現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政治上 또는 組織上的 問題는 무엇이든 党的 指導的 指令이 없이는 國家機關 및 其他的 大衆組織에 의해서 決定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라고 말하였고 또한 푸롤레타리아 自体가 처음부터 「勤勞者의 前衛이며 党은 푸롤레타리아트의 前衛만큼 따라서 前衛의 前衛 또는 푸롤레타리아獨裁의 組織에 있어서 最高의 指導者이다」라고 規定하였다.

北韓의 勞動党은 이상의 命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北韓 當局은 그의 勞動党이 「人民政權의 嚮導로 되고 있으며, 人民政權은…… 勞動党的 路線과 政策을 집행한다」고 말하고 있다.¹³⁾

요컨대 勞動党은 北韓의 實質的인 最高權力기관이며, 北韓 國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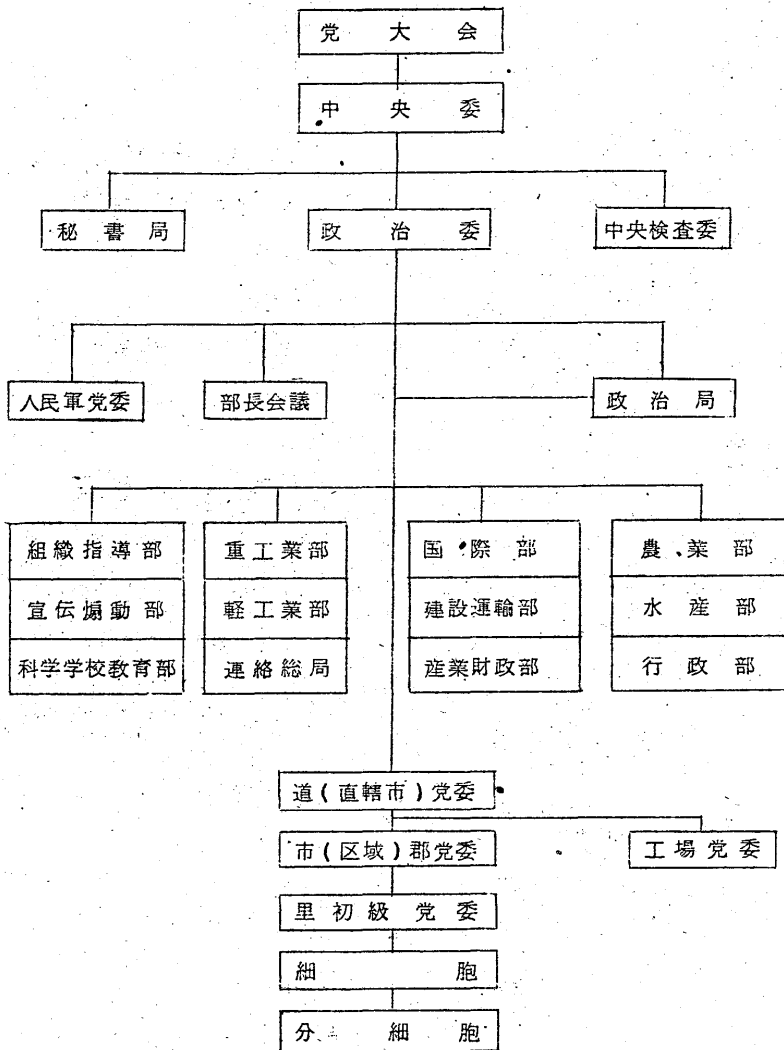
機關의 權力行使는 勞動黨에 의해서 授任된 것에 불과하다,

다음 勞動黨의 構造는 「黨統一의 原則」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原則은 만일 黨內部的 分裂이 있을 경우에는 政治權力의 獨占은 사실상 不可能하다는 認識에 기인하고 있다. 즉 黨은 「相異한 그룹의 集成物이 아니라, 한장의 花崗岩과 같은 굳은 統一體的 意識, 鉄과 같은 規律에 의해서 結合된 統一의인 中央組織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¹⁴⁾ 最下端으로 부터 最高지도자에 이르기까지 黨의 隊列에 있어서의 完全한 統一과 結束은 獨裁와 黨의 지도적 역할의 成功 및 그의 生存을 위해 基本的이고, 절대 不可欠의 要求로 간주되고 있다.

北韓 勞動黨은 이러한 原則과 基本要求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中央集權主義를 채용하고 있다. 勞動黨規約 第2章 17條 「다」項에서 「黨員은 黨組織에 복종하며, 「少數는 多數에 복종하며 下級黨組織은 上級黨組織에 복종하며 全体黨組織은 黨中央委員會에 절대 복종한다」고 되어 있다.

勞動黨中央委員會에서는 分派와 그룹의 結成을 절대로 禁止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勞動黨首 金日成의 절대적 獨裁權力이 실현되고 있으며 勞動黨首를 頂点으로 하는 피라미트型的 黨權力體系가 形成되고 있다.

勞動黨의 構造를 圖表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勞動黨 構造는 地域的 및 生産的 基礎위에 세워진 피라미트型的 權力을 表現하고 있다.

피라미트型 機構의 頂點에 있는 黨大會는 形式的 代表機關에 불과하며 黨政策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最高權力의 기능을 가진 것은 政治委員會와 또한 秘書局이다. 中央委員會는 黨大會가 열리지 않는 期間에 黨大會의 權限을 代行하는 最高機構로 되어 있으나, 이것도 1년에 2회 소집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常設機構가 아니며, 事實上 政治委員會와 秘書局이 그 中核으로서 실질적 最高權力을 구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中央委員會는 政治委員會와 秘書局 내부에서 異見이 야기되거나 權力을 에워싼 갈등이 빚어져 그 自体로서는 無限한 수습이 困難하다고 볼 경우에는 黨中央委員會가 소집되어 이를 調整하는 것이 常例로 되어 왔다. 1956年 9月の 勞動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을 비롯하여 北韓 最高權力層의 내부에서 權力 및 政策을 에워싸고 심각한 陣痛에 직면할때마다 中央委員會가 그것을 調整하는 役割을 했던 歷史的 事實을 想起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의 最高權力者가 黨中央委員會에서 多數派를 확보하고 있는지의 与否는 중요한 關心事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組織的 反外派가 거의다 肅清되고 金日成과 그의 直系로 權力이 一色化된 60年代 이후에는 勞動黨中央委員會의 기능마저 有名無實한 것이 되고 말았으며 金日成이 主導하는 黨政治委員會의 決定을 異議없이 그대로 黨政策으로 追認하는 한낱 裝飾機構로 化

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党中央委員會에 關心을 돌릴만한 점이 있다면 北韓權力의 序列대로 同委員會의 名單이 羅列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다음 北韓勞動黨의 上下組織、및 機構間의 相互關係는 강력한 中央集權主義의 原則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北韓當局은 中央集權主義가 아니라 民主主義의 中央集權主義라고 主張하고 있으며 그 根拠로 첫째, 最下級으로 부터 最上級에 이르기까지 黨의 모든 指導機關은 選舉에 의해서 구성되고, 둘째, 黨의 各級指導機關은 選舉 받은 黨組織에 自己事業을 定期的으로 總轄報告한다. 셋째, 엄격과 規律과 少數者의 多數者에 대한 복종, 넷째, 下級기관에 대한 上級 기관 결정의 絶對的 拘束을 들고 있으나, 党中央의 決定 乃至 意思는 事實上 어떠한 批判과 牽制도 받지 않고, 그대로 強要되고 있음으로 「民主主義의 中央集權主義」는 擬制에 불과하다.

한편 勞動黨機構의 名單位 가운데서 權能 및 責任이 세가지로 区分되고 있다.

첫째, 代表機關이다.

最下層의 黨組織에는 黨總會, 道·市(區域) 郡黨의 경우는 黨代表者大會, 全黨의 경우에는 黨大會가 그것이다. 이러한 代表機關은 常設의 것이 아니고, 黨大會는 4年 道黨代表者大會는 2年에 각각 1回, 市(區域) 郡黨代表者大會는 1年에 1回以上 소집되기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執行機關이다.

黨總會가 選出하는 初級黨, 執行委員會, 該當代表者大會가 選出하는 道·市(區域) 郡黨委員會, 黨大會가 選出하는 党中央委員會가 그것이다.

黨指導機關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以上の 各級黨委員會는 該當 黨組織의 活動을 日常的으로 指導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各級黨委員會도 常設機構가 아니며 例컨대 中央委員會는 6個月에 1回以上 召集된다.

세 제, 各級黨委員會에서 選出되는 常務 機關이다. 中央委員會의 政治委員會, 道黨委員會의 執行委員會, 市(區域)郡黨委員會의 執行委員會 등이 그것이다. 이 機關은 連日 혹은 빈번히 會合하고 피라미트型 組織의 機能的, 地域的 連結點에 있어서 黨活動의 利害關係에 不斷한 注意를 돌리고 全党機構의 日常的 運營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고 있는 中樞的 組織體이다.

2. 國家機構

北韓의 國家機關은 勞動黨과 거의 同一하게 系統制的 原理에 의해서 成立되고 있으며, 形態的으로는 黨權力機構와 併行하여 國家權力의 피라미트型을 形成하고 있다. 그 基底에는 都市 및 農村의 人民會議 및 人民委員會가 있으며, 그 위에 順次로 中央의 國家機構가 聳立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共和國의 國家諸機關은 唯一한 體系를 이루고 있다. 共和國에 있어서 人民政權의 唯一性은 國家機關 體系의 唯一性의 前提이다.」¹⁵⁾

北韓의 國家 諸機關은 最高權力을 統一的으로 掌握하고 있는 國家主席을 頂點으로 唯一한 體系를 이루고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말하기를 이같은 國家機關 體系의 唯一性은 北韓의 政治, 經濟的 基盤 및 北韓에 있어서의 社會主義 建設과 韓半島의 共產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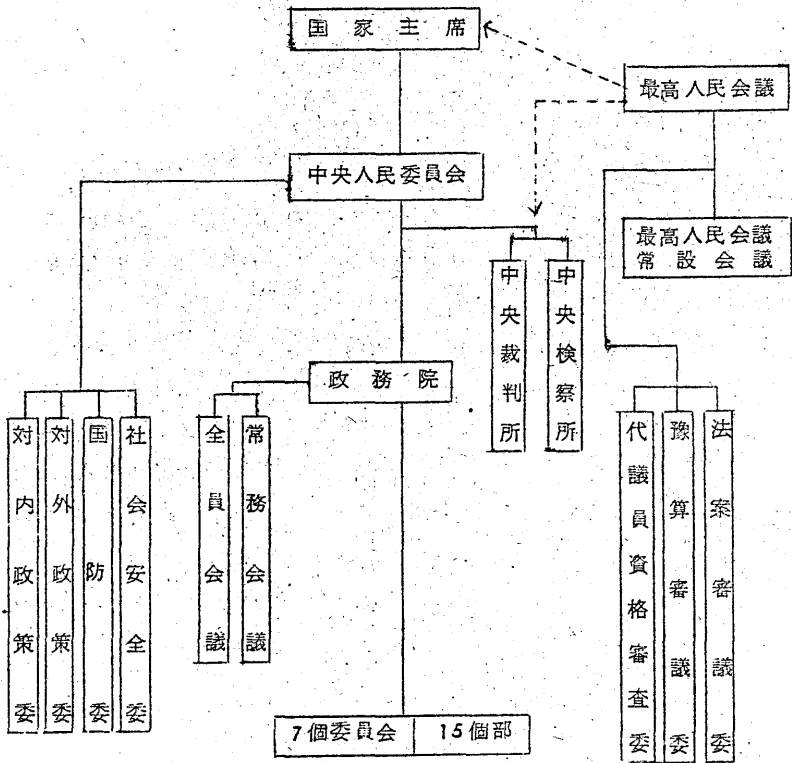
統一이라는 課題의 共通性에 依해서 規定되고 있다고 한다.¹⁶⁾

즉 國家機構의 體系에 있어서는 近代民主政治에 不可欠의 條件으로 되고 있는 3權分立을 否定하고 超中央集權化의 原則을 堅持하고 있는데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多黨제타리아獨裁의 概念에 立脚하고 있다.

北韓 國家機關은 總體的으로는 唯一의 體系를 이루고 있으나 그 가 担当하는 政權의 實現形態는 多様하며 또 그에 相應하여 그들의 組織과 活動形態도 相異하다.

北韓 憲法에서는 政權의 實現形態와 權限에 따라 北韓 國家機關을 主權機關이라고 하는 最高人民會議과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 및 地方人民會議, 그리고 國家權力의 執行機關으로서 國家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 및 政務院, 地方人民委員會로 系統化하고 있으며, 한편 司法機關으로서 各級 裁判所와 各級 檢察所로 区分하고 있다.

北韓의 國家機構(中央)를 圖表로 보면 다음과 같다.



凡例→選舉

上記 図表는 1972年 12月 새로운 「社會主義憲法」에 의한 國家機構이다.

새 憲法에서 가장 重要한 點은 國家主席의 新設이다. 國家主席은 國權을 대표하고 國政의 最高指導機關인 中央人民委員會의 委員長으로서 向委員會를 直接 지도하며, 또한 軍最高司令官, 國防委員會 委員長을 爲하여 軍의 最高統帥權을 掌握함으로써 權力을 極度로 그 에 集中化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國家主席인 金日成의 獨裁權力을 一層 強化시킨 것이다.

한편 最高人民會議는 如前히 最高主權機關이라고 稱하고 있으나 從前의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合議制大統領(委員長은 國家元首)이라는 그의 地位를 國家主席에 넘겼을뿐만 아니라 그 權限을 中央人民委員會에 大體 넘기고, 常任委員會 대신 新設된 常設會議는 有名無實한 것이 되고 있다.

中央人民委員會는 國政의 論議와 決定에서 集團指導制를 실시하고자 하는 試圖로 分析되며, 여기에는 黨政治委員會의 成員 즉 黨僚와 함께 總數(約 30名)의 約 3分の1에 達하는 테크노크라트를 參加시키고 있다.

新設된 政務院은 旧體制의 內閣에 해당되고 있지만 그의 指導機關으로 中央人民委員會와 國家主席制가 設立되었기 때문에 政策의 決定權限은 狹少化되고 보다 더 實務部署化되고 있다고 보겠다.

다시 말하면 旧體制에서는 黨의 政治委員會 및 秘書局과 國家機構의 內閣이 橫的 關係에서 竝立되고 있었다고 하면 新體制에서는

中央人民委員會가 內閣에 代置되었고, 新設의 政務院은 그 下位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편 「國家政治保衛部」는 非公開된 채 1974年 1月頃에 새로 設置된 것으로 確認되고 있는데, 이는 一般의 國家機構의 體系라는 別途로 金日成에 直屬된 特別 機關으로서 주로 金日成權力 및 그 後繼者 問題에 대한 威脅 및 抵抗要因을 除去하는데 主目的을 둔 秘密警察 機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共產國家에서도 類例가 없는 것이며, 金日成權力과 그의 後繼者問題에 不安要因이 潛在하고 있음을 自認하고, 그의 除去에 汲汲하고 있는 証左라고 보지 않을 수 없겠다.

第2章 北韓 權力構造의 變動過程과 그要因

第1節 北韓 權力構造의 歷史的 變動過程

北韓에서는 1945年 10月 10日이 朝鮮勞動黨의 創黨日이라고 말하고 每年 이날을 記念하고 있다. 따라서 理論上으로는 이때에 北韓의 權力機構가 처음으로 樹立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때는 여러갈래의 共產主義運動의 派閥 또는 그룹이 黨權을 에워싼, 싸움을 치열하게 展開하고 있었고 其實 1945年 10月 10日 以北 共產黨熱誠者大會 즉 北朝鮮 共產黨의 創黨大會라고 오늘날 主張하고 있는 이 모임은 蘇聯軍政의 庇護를 받고 있던 金日成의 北韓의 多數 共產主義組織을 代表하지 못한 獨舞台에 불과하였다. 더우기 同大會는 秘密裡에 開催되었으며 여기서 行했다는 金日成의 基調演說은 50年代에 가서 뒤늦게 發表했던 것이다.

한편 當時 微妙한 關係는 서울의 共產主義 指導者들과 北韓 共產主義 指導者, 特히 金日成사이에 빚어지고 있었다. 北韓黨 當局은 50年代까지 前記 45年 10月 10日에 「朝鮮 共產黨 北朝鮮分局」 또는 「朝鮮 共產黨 北朝鮮組織委員會」를 設立했고 서울의 共產黨當局은 「朝鮮 共產黨 北朝鮮分局」의 設立을 承認했다고 記錄하지 않을 수 없었거니와⁷⁾ 當時 金日成을 비롯한 北韓 共產主義 指導者들은 좋은 싫든 朴憲永이 指導者는 서울의 共產黨組織을 朝鮮 共產黨 中央으로 받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南北勞動黨이 合黨(1949年)된 이후 朴憲永系가 金日成에 의해서 肅清되고 또한 延安派, 蘇聯派등에 역시 金日成에 의해서 거의다 肅清되어버린 50年代末葉 이후에는 「北朝鮮分局」이라는 表現을 回避했으며 金日成은 지난 75年 10月 10日 勞動黨創黨 30周年記念일에 즈음한 演說에서는 「北朝鮮共產黨中央委員會」라고 말했다. 18)

이렇듯 創黨大會라고 하는 1945年 10月 10日의 「以北5道共產黨熱誠者大會」에서는 中央集權的인 共產黨機構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金日成의 指導體制는 形成될 수 없었던 것이다. 後日 金日成은 이때를 回顧하면서 地方主義가 強하고 群雄割拠의 상태에 있었다고 비난하였다.

北韓 共產黨이 中央集權的인 指導體制를 갖추고 金日成이 名實共히 黨의 指導者로 등장한 것은 1945年 12月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第3次擴大會議에서 金日成이 責任秘書로 된 때부터 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前後에 걸쳐 金日成의 權威를 부정 또는 挑戰하는 派閥과 個人에 대한 假借없는 숙청을 단행한 것은 물론이다. 共產主義 理論에서나 共產主義運動의 판락에서 金日成을 압도하고 했던 玄俊赫(國內派)이 맥주에 暗殺당한 것도 이때이다.

한편 金日成과 그 一派보다 뒤늦게 北韓에 들어간 中共系 共產主義者들(延安派)은 金料奉을 頂點으로 新民黨을 組織하고 金日成系와는 別途로 共產主義勢力을 확대해 나갔다.

新民党은 맑스·레닌主義政당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中國共產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으며 金日成系와 相異點은 知識層과 일부 小資産層을 勞動者, 農民과 함께 主要 構成要素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金日成은 이러한 新民黨의 挑戰에 대해서 그의 共產黨의 體質을 改善함으로써 新民黨과의 勢力競爭에서 勝利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對決을 피하여 新民黨과 合黨하는 길을 擇하는 길이 있었다.

그런데 金日成에게는 新民黨뿐만 아니라 金日成이 北韓에 登場하기 以前에 이미 強力한 組織을 굳이고 있었던 國內派를 去勢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課題에 當面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싫든 新民黨과 合黨하기로 方針을 세웠다.

1946年 8月 北朝鮮共產黨과 新民黨이 合黨하여 北朝鮮勞動黨을 創黨하였으며 新民黨側의 金科奉이 中央委員會 委員長으로 되고 金日成은 副委員長으로 되었다. 그러나 1946年 2월에 이미 北韓의 政權機關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구성되고 金日成이 委員長으로 되고 있었던만큼 權力은 黨이 아니라 蘇聯의 庇護를 받고 있었던 金日成이 장악하고 있었다.

1948年 3月 北朝鮮勞動黨 第2次大會에서 金日成이 名實共히 黨首로 됨으로써 黨의 獨裁權力 體系가 비로소 公式化되었다.

北朝鮮勞動黨 第2次大會에서는 黨의 常設 最高權力機構로 政治委員會와 組織委員會(現在の 秘書部 機能과 大体로 同一하다)를 두었다. 그 構成員은 다음과 같다.

政治委員會 委員: 金日成, 金科奉(延安派), 許哥而(소련派), 金策(金日成系), 崔昌益(延安派), 朴一禹(延安派), 朱寧河(國內派), 計 7명

組織委員會 委員: 金日成, 許哥而(소련派), 金烈(소련派), 朴昌玉(소련派), 朴英先(金日成系) 計 5명

다음 1956年 4月 朝鮮勞動黨(1949年 5月 南北勞動黨이 合黨하여 朝鮮勞動黨으로 改稱) 第3次大會에서 選출된 常務委員會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이때 組織委員會를 廢止하고 政治委員會는 常務委員會로 改稱하였다.

常務委員會 委員: 金日成, 朴正愛(소련派), 金一(金日成系), 鄭一龍(國內派), 崔庸健(金日成系), 朴金哲(金日成系), 林春秋(金日成系), 金光俠(延安派), 南日(소련派), 李孝淳(金日成系), 金昌濟(延安派) 計 11명

常務委員會 候補委員: 李鍾玉(國內派) 韓相斗(國內派) 河仰天(延安派), 金翊善(金日成系) 計 4명

1948年 3月の 勞動黨 第2次大會에서 政治委員會 7名 가운데 金日成系는 그 自身外에 1名밖에 안되었는데 比하여 1956年 4月の 第3次大會에서는 常務委員會 委員 11名 가운데 金日成以外에 5名으로 增加하여 過半數를 차지하였음을 指摘해야 하겠다.

한편 延安派는 1948年 3月の 第2次黨大會에서 政治委員會 7名 가운데 3명이던 것이 1956年 4月の 第3次大會에서는 常務委員會 委員 11名 가운데 2名으로 줄었고, 이 들마저도 金日成의

心腹으로 돌아섬으로써 事實上 延安派를 떠난 者들이었다.

蘇聯派는 1948年 3月の 第2次党大会에서 政治委員會 委員 7名 가운데 1名이고, 組織委員會 委員 5名 가운데 3名으로 過半數를 占했는데, 1956年 3月の 第3次大会에서는 常務委員會 委員 11名 가운데 2名으로 줄어 勢力이 多少 衰退했음을 보였다.

国内派는 1948年 3月の 第2次党大会에서 政治委員會 委員 가운데 1名이었는데 1956年 4月の 第3次大会에서는 常務委員會 가운데 1名으로 初期부터 다른 派에 比하여 微弱한 存在에 불과하였다.

以上과 같은 變遷은 金日成系가 第2次党大会로부터 3次大会에 이르는 約 8年間に 權力鬭爭에서 점차 다른 派를 압도하고 金日成의 独裁權力이 굳어져 가고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고 보겠다.

다음 1961年 9月の 労働党 第4次大会에서 選出된 政治委員會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政治委員會 委員: 金日成, 崔庸健(金日成系), 金一(金日成系), 金昌滿(延安派), 朴金哲(金日成系), 李孝淳(金日成系), 金光俠(延安派), 李鍾玉(国内派), 鄭一龍(国内派), 南日(소련派), 朴正愛(소련派)
計 11명

政治委員會 候補委員: 金翔善(金日成系), 李周淵(国内派), 河仰天(延安派), 韓相斗(国内派)

労働党 第4次大会에서 最高權力機構인 政治委員會의 以上과 같은 構成은, 金日成系가 더욱 強化되고, 소련派와 延安派가 각각 2名으로 下位 序列에서 안배되고, 国内派가 正委員 2名, 候補委員 4名 가운데

에 2名으로 두드러지게 進出한 特徵을 보였다. 延安派와 소련派의 最上層이 1956年 9月 反金日成運動으로 肅清된데 따라 金日成系에 積極的으로 協力하고 있던 國內派 人物들을 最高權力層에 登용함으로써 소련, 延安 兩派를 견제하고자 했던 의도가 엿보인다.

다음 1956年 10月 勞動黨代表者會에서 改編된 政治委員會와 新設된 常務委員會 및 秘書局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常務委員會는 政治委員會의 核心分子로 구성되었으며, 權力을 金日成에게 보다 더 集中시키기 위한 것이다.

政治委員會 委員: 金日成, 崔庸健(金日成系), 金一(金日成系), 李周淵(國內派), 朴金哲(金日成系), 李孝淳(金日成系), 金光俠(延安派), 李鍾玉(延安派), 南日(소련派), 朴正愛(소련派), 金翊善(金日成系), 金昌奉(金日成系), 朴成哲(金日成系), 崔賢(金日成系), 李永鎬(소련派) 計 15명

政治委員會 常務委員會 委員: 金日成, 崔庸健(金日成系), 金一(金日成系), 朴金哲(金日成系), 李孝淳(金日成系), 金光俠(延安派) 計 6명

秘書局 秘書:

總秘書 - 金日成

秘書 - 崔庸健(金日成系), 金一(金日成系), 朴金哲(金日成系), 金光俠(延安派), 石山(金日成系), 許鳳學(金日成系), 金英柱(金日成系), 朴容國(金日成系), 金道滿(金日成系) 計 10명

金日成系는 政治委員會 15名가운데 8名, 常務委員會 6名가운데 5名, 秘書局 秘書 10名가운데 9名을 차지함으로써 1961年 9月

労働党 第4次大会 이후 1966年 10月 労働党代表者회에 이르는 約 5年間に 金日成系에 의한 權力의 完全 独占이 거의 完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党代表者회가 党中央委員會의 改編을 그 機能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비추어 이때의 党代表者회는 戰爭準備의 政策을 党路線으로 確定하는 동시에 金日成의 權力과 政策路線에 위협이 되는 일체의 權力構成의 요소들 제거하고 一糸不乱한 金日成의 獨裁體系 確立에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된다.

특히 이 모임에서 延安派로서 1956년에 延安派 肅清에 큰 功勞를 세운 金昌濤이 權力에서 제외된 것은 당시 北韓이 對中共偏向으로 부터 對蘇關係의 개선으로 轉換한 사실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겠다. 즉 北韓의 對外政策 가운데 가장 중요한 對中蘇를 變化시키는 政策에서 否定的 태도 乃至 反撥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要因을 權力의 構成에서 제거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意圖였다고 보겠다.

다음 1971年 11月 労働党 第5次大会에서 새로 구성된 政治委員會와 秘書局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1966年 10月 労働党代表者회에서 新設했던 常務委員會는 이때 廢止되었다.

政治委員會 委員: 金日成, 崔庸健(金日成系), 金一(金日成系), 朴成哲(金日成系), 崔賢(金日成系), 金英柱(金日成系), 吳振宇(金日成系), 金東奎(金日成系), 徐哲(金日成系), 金仲麟(金日成系), 韓益株(金日成系) 計 11名

政治委員會 候補委員: 玄武光(延安派), 鄭準沢(国内派), 梁亨燮

(金日成系), 金萬金(소련派) 計 5명

秘書局 秘書:

總秘書 - 金日成

秘書 - 崔庸健(金日成系), 金一(金日成系), 金英柱(金日成系), 吳振宇(金日成系), 金東奎(金日成系), 梁亨燮(金日成系)

以上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1970年 11月の 勞動黨 第5次 大會에서는 北韓權力の 中核으로 되는 政治委員會와 秘書局을 全員 金日成系로 망라하고 말았다. 이것으로 權力을 에워싼 派閥間의 오랜 暗闘는 一段落된 셈이다.

1966年 10月 勞動黨代表者會때와 比較하면 同代表者會에서 選出된 政治委員會 및 秘書局 構成員 19名(兩機關의 總數는 26名이지만 兼職한者가 7名이다) 가운데 무려 14名이 脫落되고 말았다. 이 같은 大規模의 脫落은 1967年 3月頃 「消極性과 保守主義」라는 이유로 朴金哲(黨組織責)과 李孝淳(對南工作責) 一派가 肅清된 事件과 또한 1969年 12月頃 金昌奉(民族保衛相)과 崔光(人民軍總參謀長)을 비롯한 北韓軍 首腦部가 多數 肅清된 事件에 기인한다.

第2節 權力變動의 要因

北韓權力の 歷史的 變動要因을 더듬어 보면 몇가지 特徵을 찾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權力鬭爭이 거의 全的인 要因으로 되었고,

여기에 蘇聯 또는 中共으로 부터 壓力이 作用했다. 그러나 1950年代 後半부터는 政策對決이 權力鬭爭에 加味하기 시작하다가 1960年代 이후에는 政策對決의 比重이 權力鬭爭의 要因보다 도리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要因이 添加된 것은 產業 및 經營專門家의 진출을 막을 수 없었다는 點이다.

먼저 權力鬭爭의 面을 살펴 보기로 한다. 1950年代에 休戰前後에 걸친 朴憲永, 李承燁을 비롯한 南勞黨系가 金日成權力을 伸복시키기 위한 쿠데타를 음모했다는 罪目으로 肅清됨으로써 朴憲永(黨中央委員會 副委員長)과 李承燁(黨中央委員會 秘書) 등이 北韓權力의 中核으로 부터 除去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朴憲永系와 親近했다는 혐의를 받고 許哥而(黨中央委員會 秘書, 소련派)가 自殺하는등 적지 않은 人物을 權力의 中核 또는 中堅으로 부터 追放되었다.

이렇듯 南勞黨系와 그의 關聯者들이 除去된데에는 政策的 異見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權力鬭爭이 支配的 要因이었다.

다음 1956年 9月부터 約 1年間に 걸친 延安派 및 一部 蘇聯派의 肅清은 金日成이 1965年 10月 10日 勞動黨 創黨20周年에 즈음한 演說에서 指摘한바와 같이¹⁹⁾ 金日成의 權力體系에 커다란 威脅을 加했던 事件이었는데, 同事件은 權力鬭爭의 性格을 가진 同時에 그와 表裏의 關係에서 政策對決의 面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反金日成運動의 先頭에 선 延安派와 일부 蘇聯派는 초기부터 金日成權力의 獨裁化와 橫暴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오다가 1956年 2月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에 刺戟받아 金日成 個人崇拜와 無謀한 重工業偏重을 批判하는 運動을 表面化시켰던 것이다.

어떻든 金日成과 그 一派는 이 事件을 계기로 끊임 없이 그의 權力을 隱然히 위협해 오던 異質의 派閥과 政敵을 除去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宿望을 이룩한 셈이 되었다.

1961年 9월에 열린 勞動黨 第4次大會에서 勞動黨中央委員會 委員가운데 約 3分之1을 追放하고 이를 金日成 直系 또는 그의 忠僕으로 代替시킨 것도 마침내 金日成 獨裁權力이 確立하고 同時에 反對派가 다시 組織化될 수 없도록 封鎖하는데 成功한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1960年代에는 反對派閥의 組織的 挑戰이 거의 不可能하게 된 與件에서 派閥다툼의 性格을 띤 權力鬭爭이 두드러지게 展開될 餘地는 없었으며, 따라서 權力變動은 主로 政策을 에워싼 對立에 起因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重要한 事件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6年の 金昌滿과 그 一黨을 去勢시킨 事件이다.

金昌滿은 本來 延安派이기는 하지만 金日成이 強力한 政敵으로 對했던 朴昌玉(소련派)을 去勢시키는데 앞장섰고, 뒤이어 1956年 延安派를 肅清하는데 있어서도 金日成에게 積極的으로 협조했거니와 金日成으로 부터 두터운 信任을 獲得하고 있었던 者이다.

그러나 金日成은 어느 누구도 勢力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보면
적어 버려 버려 버려, 게다가 1960年代 後半期에 들어 北韓이 對中蘇關
係를 變化시킴에 즈음하여 中共系의 金昌滿을 祭物로 올렸다.

둘째, 1967年 3月頃 朴金哲, 李孝淳 一党的 肅清事件이다.

이들은 金日成系이기는 했으나 金日成 一派의 無謀하고 狂的인
戰爭準備 政策에 批判的이었고, 소위 「南朝鮮革命」을 통한 共產化
統一에 重点을 둠으로써 戰爭을 피해야 한다고 主張하다가 肅清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當時 朴金哲은 黨政治委員會 委員이며 黨
組織指導部長이었고, 李孝淳은 黨政治委員會 委員이며 黨連絡部長으로
서 對南工作의 責任을 맡고 있었다.

朴金哲과 李孝淳 및 그 一黨을 肅清한 後 「消極性과 保守主義
를 反對하자」 라는 口號가 나타났으며 1967年 3月의 勞動黨中
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이 口號를 黨的 中心的 鬭爭課題로 決定한
것은 以上에서 말한 政策對決이 매우 심각했었음을 示唆해주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黨과 首領을 曷숨으로 保衛하자」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새로운 口號를 내건것은 朴金哲, 李孝淳 一
黨의 肅清事件과 결코 無關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以上의 政策對決은 金日成獨裁權力에 위협이 될만큼 潛在的 抵抗勢
力이었다는 것을 金日成一派가 自認한 증거라고 하겠다.

셋째, 1949年 12月頃의 北韓軍部 肅清事件이다.

이 事件에서는 民族保衛相 金昌奉, 人民軍總參謀長 崔光, 人民軍總
政治局長 許鳳學등이 一擧에 追放되었다.

이 事件의 内幕은 公開되지 않았으나, 1970年 1月 人民軍黨擴大 全員會議(秘密會議)에서 行한 金日成의 演說은 同事件의 性格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金日成은 同演說에서 肅清된 軍首腦部가 犯한 잘못을 다음 몇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金日成의 唯一思想體系에 도전하였다. 둘째, 北韓의 戰爭準備政策에 消極的 이었다. 세계 全人民의 武裝化 政策을 반대하여 勞動赤衛隊의 強化를 輕視하였으며, 同時에 全國의 要塞化 政策을 形式的이고 不忠實하게 집행하였다. 셋째, 美軍으로 부터의 報復을 두려워 하였다. 다섯째, 人民軍隊內에 軍閥造成을 피하고 反革命으로 나갔다.²⁰⁾

金日成의 이상과 같은 비난으로 보아 同 肅清事件은 軍事戰略에 對한 對立이며 보다 높은 次元에서 평가한다면 北韓의 소련 및 中共과의 共同防衛體制가 北韓의 防衛 乃至 攻擊에 갖는 比重을 어떻게 두느냐의 問題에 對한 對立이었다고 보겠다. 즉 金日成側은 1962年 12月 勞動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이래 표방한 「國防에 있어서의 自衛」로 北韓의 防衛와 공격을 기본적으로 카바하여야 하고, 소련과 中共과의 軍盟은 그것을 補充하는 역할에 그치게 해야 한다고 한데 對해서, 反對派는 소련 및 中共과의 共同防衛體制를 自衛에 못지 않게 중요시하고, 나아가서 共同防衛體制가 輕視된다면 北韓의 방위는 보장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마구어 말하면 前者는 이른바 全體思想과 自主性에 理論的 근거를 둔 모험주의이고, 政治優先主義인데 對해서, 後者는 合理主義이고 現實을 重視하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또 다른 側面으로 이 肅清事件을 평가한다면 黨이 軍을 支配해야 한다는데 대한 반발이었으며, 이는 肅清된 軍首腦部가 人民軍隊內的 黨事業을 忽視했다고 비난된 것으로도 立証될 수 있다.

어떻든 이상에서 說明한 이 肅清事件의 성격과 그리고 肅清된 軍首腦部가 모두 金日成의 直系였다는 事實로 미루어 派閥鬭爭이 아니라 政策을 에워싼 對立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음 北韓 權力變動의 또 하나의 要因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北韓의 權力과 소련 및 中共과의 관계이다. 北韓의 權力이 對外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同權力이 本來 소련으로부터 가져다 준 것이고, 同時에 이때까지 北韓은 中. 蘇사이의 主導權을 에워싼 競爭의 對象으로 되어 온 緣由한다.

1950年 北韓 權力에 대한 소련 및 中共으로부터의 영향이 어떻게 作用했는가는 1956年 9月 延安派 및 소련派 一部の 肅清事件이 시사해 주고 있다. 1956年 9月 金日成이 緊急 소집한 勞動党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金日成權力에 對抗해 나선 延安, 소련兩派를 假借없이 肅清하기로 결의하였고, 延安派가운데 數名은 禍를 피하기 위하여 이미 中共으로 亡命하였는데, 同全員會議 직후 소련으로부터 第一副首相 미코얀, 中共으로부터 國防相 彭德懷가 秘密裡에 平壤에 와서 肅清하기로 결정된 자들이 反革命分子라고는 볼 수 없으니 寬大하게 처리하라고 壓力을 가함으로써 金日成 一派는 대부분의 肅清 결정을 번복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후 1958年에 이르는 동안 反金日成運動者들은 結局 肅清되고 말았으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犯罪」를 造作함으로써 소련 및 中共지도자들에게 納得시켜야 하였다.

한편 延安派 및 소련派의 反金日成運動은 1956年 2月 소련 共產黨 第20次大會에서의 個人崇拜批判 乃至 非스탈린化에 고무되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소련指導層의 支持 및 中共指導層의 默認을 기대한 것이었다고 보겠다. 당시 모스크바에 駐在한 北韓大使 李尙朝가 이때의 反金日成運動에 가담하고 金日成의 過誤를 蘇聯當局에 告發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²¹⁾

마지막으로 北韓 權力變動의 要因 가운데 하나로서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金日成의 後從者 問題이다. 金日成이 그의 아들 金正一을 後繼者로 內定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라면 後繼者 問題에 관한 金日成의 뜻에 어긋나는 一切의 言行을 容納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새로운 權力을 에워싼 爾濼 劇이 빚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73年 12月 새로운 「社會主義憲法」 體制에 의해서 國家主席制를 新設함으로써 金日成獨裁體制를 강화하는 동시에 金東奎를 國家副主席에 올려 놓는 反面에 金英柱(金日成의 實弟)의 權力序列을 낮추는 등 權力構成을 再整備한 것은 後繼者 問題를 의식한 처사라고 보겠다.

1966年 10月 勞動黨 代表者會에서 改編한 權力體制는 金英柱를 金日成의 後繼者를 내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金英柱는 一躍 黨政策委員과 秘書局의 秘書로 올려 놓았을뿐만 아니라 事實上 金日成, 崔庸健, 金一에 이어 第4位의 權力序列에 올랐으며 한편 117名의 黨中央委員會 委員의 選出에 있어서도 金英柱系를 많이 등용 乃至 昇進케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金日成이 보다 年老해 질수록 後繼者문제에 에워싼 權力鬭爭은 隱然히 또는 公開의으로 점차 치열해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第3章 北韓權力の 派閥과 金日成

第1節 共産黨 派閥鬭爭의 歷史的 傳統

우리나라 共産主義 운동은 그 起源을 1910年代 末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는데 初期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黨權을 에워싼 또는 理念的 對立으로 말미암은 派閥鬭爭으로 얼룩지고 있다.

1919年 8月 申奎植을 비롯한 黨의 社會主義者들이 上海에서 「朝鮮社會黨」을 창립한 것을 우리나라 社會主義 운동의 起源이라고 주장되고 있으나²²⁾ 이렇다할 運動의 業績을 남기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한편 1917年 末 李東輝가 中心이 되어 露領 우리지보스토크에서 「韓人社會黨」을 조직하였으며, 1919年에는 「高麗共産黨」으로 黨名을 바꾸고 얼마후 本拠地를 上海로 옮겼다. 이것이 世稱 上海派의 始終이며 일쿠르크派와 黨權과 共産主義 運動의 方向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展開했으며 이는 1925年에 創立한 朝鮮共産黨內의 派閥鬭爭에 까지 連関을 갖게 되었다.

일쿠르크派타함은 露領 일쿠르크에 居住하고 있던 韓人들이 1918年 頃에 「韓人共産黨」을 별도로 조직한 것을 말한다. 李東輝가 主導하는 上海派가 社會主義者임을 自認하면서도 獨立運動에 鬭爭을 집중함으로써 民族主義의 色彩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며 대해서 일쿠르크派는 이미 러시아 共産主義組織에 가담한 자가 적지 않았거나와 民族意識이 비교적 약하고 共産主義의 理念에 깊이 빠져 있는

過激分子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편 海外 韓人들의 社會主義 乃至 共產主義者들의 운동은 露領과 中國 이외에도 日本에 있는 留學生들과 知識人들 사이에서 볼 수 있었고 이것이 또한 새로운 派閥의 要素로 된 것은 물론이다. 이들은 日本의 東京과 서울을 수시로 往來하면서 日本에 먼저 전파된 馬스主義思想을 비롯한 社會主義思想과 또한 無政府主義思想등을 國內에 傳達함으로써 朝鮮共產黨의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共產主義 組織으로는 「北星會」를 들 수 있다. 北星會는 1924年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을 그 傘下에 조직하고 資本主義와의 抗爭을 宣言하는 한편 國內에 침투하여 全民族的 聯合으로 民族解放을 성취하고 社會主義를 實現시킨다는 主張 아래 「新興青年會」를 결성하고 그 세력의 확대를 꾀하였다. 23) 이들은 上海派의 李東輝와 접촉이 있었으며, 서울青年會(高麗共產系) 및 火曜會(朝鮮共產系) 등과 치열한 黨權을 에워싼 경쟁과 싸움을 벌였다.

國內에서는 1923年에 日本의 韓人 社會主義運動의 새틀인 「1月會」가 國內組織에 착수 하였는데 그 以前에 서울에는 勞農共濟會(1920年 結成)를 發판으로 하여 發生한 李英, 金思國 등의 「서울青年會」(1922年 9月 結成)와 洪命燾, 朴憲永 등의 火曜會가 社會主義運動의 中心을 이루고 있었다. 이 밖에도 金料熙가 主導하는 北風會, 金翰, 元友慶이 이끄는 無產者同盟會, 朴崇采이 이

끄는 칼륨會 등이 역시 各各 派閥을 이루고 散在하고 있었다.

1924年 4月 17日 前記 一月會의 主導로 여러 社會團體를 연합시켜 朝鮮勞農總同盟을 結成하는데 성공하였으나 1년만에 「서울青年會」의 對抗을 비롯한 派爭으로 다시 分裂되고 말았다.

이 무렵에 1月會系와 손을 잡았던 火曜會와 北風會는 無產青年同盟, 勞動黨 등과 合作하여 「朝鮮共產黨」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1925年 4月 17日 서울 雅叙園에서 朝鮮共產黨을 創立하였다. 火曜會系의 金在鳳, 洪培植, 朴憲永, 曹奉岩, 洪南杓, 權五高, 朴順東, 李準泰, 趙東祐, 金燦, 崔元沢 등과 北風會系의 金若水, 上海派(高麗共產黨系)의 朱鍾健, 俞鎮熙, 勞動黨系의 尹德熙 등을 幹部로 選出하였으며 4月 18日에는 朴憲永, 金泰淵, 林元根의 지도하에 朝鮮共產黨 共產青年會를 結成하였다. 24

한편 1925年 12月 新義州事件으로 朝鮮共產黨의 간부가 검거되고 이들의 조직이 늘어나자 同黨에 불평을 품고 있었던 서울青年會系는 蘇聯 및 上海의 極東局과 연락하여 同年에 마로히 春景園에서 共產黨을 조직하였다. 이는 春景園共產黨이라고 불리워졌으며 金思國과 李英이 責任秘書로 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社會主義 및 共產主義運動은 發生 초기부터 派爭과 主導權을 에워싼 對立과 갈등으로 잇따랐으며, 朝鮮共產黨은 各派間의 百家爭鳴 가운데서 共產主義者들의 완전한 總會를 이루지 못한채 태어났던 것이다. 이리하여 朝鮮共產黨은 日帝의 強壓 아래서 까지 派閥싸움으로 始終하다가 創立한지 4年만에 終末을 보

게 되고 말았다.

이같은 共產主義者들의 派閥鬭爭의 根本要因을 어떻게 說明해야 하겠는가? 共產主義運動 및 共產黨內의 派閥鬭爭은 러시아·볼셰비키革命의 過程과 10月革命 이후의 소베트, 러시아, 그리고 오늘날의 蘇聯에서도 크고 작다는 差異가 있을뿐 中斷되지 않고 끊임 없이 展開되었으며, 그밖의 여러나라의 共產黨 및 共產主義運動에서도 派閥鬭爭은 共通의 現象이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多年間 多數의 共產黨內에서 分派鬭爭이 벌어졌다. 이 點으로 一般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는 프렌드와 美國의 黨派인데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朝鮮共產主義運動 내부의 分派鬭爭이며, 이는 世界記錄의이다」라고 1932年. 5月の 聯邦대 執行委員會의 「朝鮮共產主義運動에 관한 意見書」²⁵⁾에 적혀 있거니와 우리나라 共產主義運動 및 共產黨內의 派閥싸움은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으며 그 傳統이 8.15 이후 北韓共產黨內의 派爭과 肅清에 反映되고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8.15 以前까지의 우리나라 共產主義運動과 共產黨組織은 大衆的 기반을 갖지 못했으며 그리하여 共產主義運動 및 共產黨의 指導層 내부에서 이데올로기 論爭으로 날을 보내는 동시에 黨指導權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專念하였다. 이것이야말로 派閥鬭爭의 根本原因이고 背景이라고 하겠다.

大衆的 기반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共產主義者들과 共產黨이 내세운 이른바 鬭爭目標 및 課題가 當時 日帝의 殖民地政治로부터

獨立을 반드시 되찾지 않으면 안된다고하는 우리 민족의 念願과 너무도 유리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하기는 共產主義者들과 共產黨도 獨立鬭爭을 前面에 내세우기는 했지만 民族的 이해관계를 國家 共產主義運動의 目標에 從屬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淸민테론(蘇聯 共產黨을 中心으로한 國際共產黨組織)의 指令에 忠實하려고 애썼고 뿐만 아니라 蘇聯을 祖國이라고 부르기를 서슴치 않았던 관계로 당시 우리나라 各界, 各層으로부터 警戒의 對象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日帝를 反對하는 獨立運動에 共產主義者를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祖國光復을 위한 民族的 大同團結에 항상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事情으로 적지않은 民族主義者들까지 처음에는 朝鮮共產黨의 강력한 獨立鬭爭에 期待를 걸고 同黨에 가담하거나 或은 提携했었으나 共產黨의 反民族的 性格이 점차 露骨化되고, 同時에 共產主義者들의 참을 수 없는 背信으로 結局 同黨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露領과 中國의 海外 韓人 共產主義運動은 各派閥에 따라 性向이 根異하였으나 러시아·불세비크의 組織에 가담하였거나 그 影響을 깊이 받은 者들은 朝鮮 共產主義運動을 蘇聯 共產黨의 世界的 戰略, 戰術이라 하는 次元에서 評價함으로써 民族的 主体性を 저버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事情은 民族主義的 傾向을 끝까지 固守하려고 노력한 일부 共產主義者들 및 그 그룹과 反目 및 갈등을 빚어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이 또한 派爭의 要因 가운데 一을 놓을 수 없는 點이라고 하겠다.

8.15 이후 北韓共產主義자들이 大衆의 基盤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1920年代 이래의 우리나라 共產主義運動의 傳統이라고 보아야 하겠고 따라서 이 點에서 前後者間의 派爭의 共通的 要因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8.15 이후 北韓共產主義者들과 共產黨 上層部는 1920年代 이래의 우리나라 共產主義運動 및 朝鮮共產黨에 가담했던 者들이 多數를 占한 事實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8.15 이후 北韓共產黨이 過去의 派爭을 再演시킨 潛在的 要因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8.15' 以前의 共產主義運動에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金日成과 그 一派가 蘇聯軍政의 庇護아래 共產主義運動에 經歷과 貫錄을 가진 者들을 支配하려는데서 보다 세찬 派爭이 展開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點이 金日成의 肅清史에 하나의 큰 줄거리를 이루게 한 것이다.

한편 金日成은 그의 反對派와 政敵을 肅清하는데 있어서 例컨대 崔昌益(延安派)의 경우와 같이 1920年代에 派閥싸움에 가담했다는데서 肅清의 口實을 찾았고 또 이미 斷行한 肅清을 正當化하려고 꾀해 온 事實도 想起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金日成에 特有한 肅清의 手法이라고 하겠으며 그의 肅清史를 敘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興味있는 記錄이 될 것이다.

第 2 節 3 大派閥과 金日成系

3 大派閥이라고 함은 國內派, 蘇聯派 및 延安派를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서 國內派라고 함은 北韓에서 共產主義運動을 하다가 8.15 를 맞고, 이후 北韓에 머물러 있었던 者들을 말한다. 南韓에서 출발 共產主義運動을 하다가 8.15 를 맞은 者들도 國內派에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38 線을 境界로 南韓内の 共產主義者들은 初期에 別途로 黨組織을 가짐으로써 北韓内の 派閥鬭爭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그 보다는 南北의 共產主義者들 사이에 党中央을 어더로 할 것인가에 날카로운 對立을 보였기 때문에 金日成의 肅清史를 엮어다가는 데 있어서는 便宜上 그들을 國內派와 분리해서 따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 金日成一派는 물론 蘇聯 및 中共과 깊은 聯繫을 갖고 있어, 보기에 따라서는 中共系라고 할 수 있고, 또는 蘇聯系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中共系인 延安派와 구별되어야 하고 동시에 주로 蘇聯 2 世들로 이루어진 蘇聯派와도 一線을 그어야 하기 때문에 便宜上 別途로 金日成系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한때 金日成一派를 甲山派라고 부르는 이도 있었으나 이는 咸鏡北道 甲山을 根拠地로 金日成一派와 抗日鬭爭을 했다는 견해에 根拠를 둔 것 같은데 朴金哲(勞動黨 組織部長까지 지내다가 肅清된者) 등과 같은 金日成派 가운데 극히 少數가 甲山을 根拠地로 抗日運動을 했을 뿐 金日成自身과 金日成派의 大部分은 甲山과 거의 關係가 없는 者들이기

때문에 金日成一派를 甲山派라고 부르는 것은 妥當하지 못하다고 본다.

먼저 國內派는 大部分 1920年代 朝鮮共產黨의 組織에 참가한 者들이었으며 8.15까지 國內에 殘留하여 日帝警察의 監視와 彈壓 속에서 地下活動을 하였고 그 가운데 多數는 日警에 檢挙되어 投獄되었거나 或은 投獄된 後 또는 投獄되지 않은 채 日警에 屈服하여 轉向에 응낙한 者들이었다. 北韓에서 國內派의 巨頭였던 玄俊赫 역시 轉向者의 收容所인 大和塾에 들어가 있었다.

國內派로 著名한 者로는 平南의 玄俊赫, 張時雨, 平北의 金載甲, 白容龜, 咸南의 吳琪燮, 鄭達鉉, 朱寧河, 李鳳洙, 李舟河(元山), 咸北의 金東龍, 黃海의 宋鳳郁, 金德永등을 들 수 있다. 金鎔範, 朴正愛夫婦도 8.15當時 國內에서 國內派와 함께 共產黨組織에 參與하였으나 本質上으로는 蘇聯派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大部分은 서울에 있는 南韓共產主義 指導者 朴憲永의 影響을 오래前부터 받고 있었으며, 朴憲永系가 아닌者들도 朝鮮共產黨의 中央은 서울에 두어야 하는 것이 當然하며 同時에 朴憲永이 南北에 걸친 朝鮮共產黨의 指導者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共同的인 見解였다. 26) 이것은 金日成이 蘇聯軍政의 등에 업혀 登場하기 前의 일이다.

따라서 平壤의 玄俊赫을 비롯하여 以上에서 列擧한 國內派들은 各己 自己의 地域에서 共產黨組織에 着手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地方組織의 태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고 將次 서울의

党中央에 所屬될 것을 意識하고 있었다.

그러면 國內派의 思想的 傾向은 어떠한가라는 點이다. 우선 國內派의 巨頭 玄俊赫으로 말하면 共產主義 理論에 밝은 者로, 누구 못지 않게 共產主義에 忠實하다고 自處하고 있었으나 殖民地로부터 해방된 이 나라에서는 急激한 共產化政策과 共產獨裁는 禁物이고 어디까지나 民主革命의 段階를 거쳐서 統一된 民主獨立國家를 수립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全民族이 大同團結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그가 平南人民政治委員會 副委員長으로서 曹晚植委員長과 協調해 나가고 또 共產主義者로서는 一般大衆의 人氣도 상당했던 것은 그의 온건한 思想과 政策路線 때문이었다고 보겠다. 27)

그밖에 國內派 人物들이 어떠한 思想的 傾向과 政策抱負를 가졌는지는 낱말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적어도 北韓에서는 玄俊赫이 國內派 指導者로 公認되고 있었고, 또한 玄俊赫이 피력한 政策路線에 國內派 共產主義者가 挑戰함으로써 對立을 이루었다는 記錄은 없는만큼 玄의 見解가 國內派를 대표했다고 看做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國內派는 蘇聯軍政이 北韓에 제대로 布陣하고, 金日成이 登場하기 以前에 各地域에서 共產黨組織을 그런대로 갖 추어 놓고 있었으며 이 事實은 곧 後에 金日成一派뿐만 아니라 뒤늦게 北韓에 歸國한 蘇聯派와 延安派는 黨權 장악의 企圖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었고 金日成系가 國內派를 肅清하는데 蘇聯, 延安 兩派와 提攜할 수 있는 材料로 되었던 것이다.

國內派에게는 蘇聯派와 延安派의 存在는 이미 알려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 兩派와 각각 어떻게 調和할 것인가를 研究課題로 올려 놓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과 그 一派의 存在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登場은 國內派에게는 奇襲이 아닐 수 없었다.

다음 延安派라고 함은 中國共產黨의 本拠地 延安에서 黨組織生活와 政治的 및 軍事的 訓練을 받고 8.15 후 北韓으로 入國한 者들이다. 이들은 獨立同盟과, 그 傘下의 朝鮮義勇軍에서 金料奉을 頂点으로 하나의 指導體制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武亭은 中共八路軍內 砲兵司令官과 朝鮮義勇軍 總司令官을 歷任하였고 이밖에 延安派 또는 그 영향하에 있는 적지 않은 者들이 中共軍에 所屬되어 있었다. 이러한 事實은 8.15 후 北韓軍의 創設에 延安派가 金日成系와 함께 主導的 役割을 할 수 있게한 歷史的 背景이 되었고, 따라서 延安派는 肅清될 때까지 軍部の 強力한 支持를 얻어 金日成系에 抵抗할 수 있었던 것이다.

延安派의 指導級人士는 金料奉, 武亭, 崔昌益, 朴一禹, 韓斌, 金昌滿, 尹公欽 등이었다. 이 가운데 崔昌益은 1920年代 朝鮮共產黨의 創立에 參與하고 金日成이 그를 肅清할 때 指摘한바 있거니와 공크롬派에 가담하였었다. 28)

金料奉을 中心으로한 延安派는 解放된 朝鮮의 社會主義 및 共產主義運動은 따당히 自身이 主導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蘇聯軍이 北韓을 占領했던 만큼 가장 強力한 競爭者는 蘇聯共產黨에서

組織生活를 하다가 入國한 蘇聯派라고 予測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金日成과 그 一派는 入國前까지 閔心밖의 存在에 不過하였고, 其實 金日成機關(傳說的인 金日成將軍이 아닌 金成柱) 이름은 들어 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1955年 延安派 朴一禹가 內務相으로부터 通信相으로 左遷된데 대해서 金日成에게 「나는 毛沢東主席의 信任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무슨 權利로 나를 一級相으로부터 3級相으로 깎아 내리느냐」고 對抗했다고 하는데²⁹⁾ 이는 延安派가 金日成에게 이때까지 품고 있던 輕蔑과 不滿을 폭발시킨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延安派가 1945年 9月中·下旬頃 新義州를 거쳐 北韓에 들어 갔을 때, 蘇聯軍政當局은 이미 金日成을 北韓權力的 指導者로 내세우기 위한 計劃을 굳히고 있어 權力的 野心에 挫折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情勢를 再檢討해야 하였다.

한편 延安派가 8.15해방이 된지 1個月이 넘어서야 入國하고 더우기 同派의 指導者 金枋奉은 더 늦게 平壤에 들어오게 된 것은 蘇聯軍政當局의 牽制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事實은 北韓의 派閥鬭爭이 장차 中·蘇關係의 越移와, 連関을 갖고 展開되리라는 조짐이었다고 보겠다. 當時 中國共產黨은 國民黨과 치열한 內戰中에 있었고, 그후 1949年 10月 中共이 中國大陸을 搗捲함으로써 政權을 수립한 이래 數年間은 毛沢東이 스스로 「向蘇一邊倒」를 宣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兩國은 서로 勢力擴張을 에워싸고 싸운 歷史的 關係, 또한 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 理念과

戰略이 서로 一致되지 않은 不調和를 강하게 意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蘇聯當局은 처음부터 北韓에서 延安派가 權力을 攬收하지 못하도록 極力 防止했다고 보겠다.

어떻게 延安派는 蘇聯軍政의 比호를 받고 있었던 金日成一派와 合流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別途로 入國한 蘇聯派와도 一線을 隔고 한참동안 覬覦하다가 1946年 3月 30日 新民黨을 創黨하기에 이르렀다. 南韓에서는 이보다 앞서 역시 獨立同盟의 後身으로 1946年 2月 16日 新民黨을 創黨하였다. 新民黨은 앞에서 言及한 바 있거니와 金日成의 共產黨과는 性向을 달리하여 勞動者, 農民뿐만 아니라 知識層과 小資產層을 組織基盤으로 삼았다. 말하자면 金日成의 共產黨이 左傾的 共產主義黨이라고 한다면 新民黨은 右傾的 共產主義黨이라고 볼 수 있었다.

興味있는 點은, 1946年 8月 金日成의 共產黨과 新民黨이 合黨함으로써 北朝鮮勞動黨으로 發足시킨 것을 大衆的 政黨으로 發展시킨 賢明한 劃期的인 処事라고 金日成이 主張하고³⁾ 그 功績을 自身에게 돌렸는데 實은 新民黨이 처음부터 이른바 大衆的 政黨으로 發足했던 만큼 勞動黨의 正統은 마땅히 新民黨이라고 보아야 하겠고 따라서 金日成은 延安派의 黨組織 構想에 뒤늦게 贊同하고 그에 迎合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음 蘇聯派는 蘇聯에서 태어났거나 或은 어린시절부터 蘇聯에서 教育을 받은 者들로 이나라 共產黨에 입당하여 共產主義者로 教育되고 단련된 者들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蘇聯軍의 北韓進

駐에 뒤따라 北韓에 入國했는데 그 時期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大部分은 延安派보다도 뒤늦게 入國했던 것으로 보인다.

蘇聯派의 巨物級으로는 南日, 許敬而, 朴昌玉, 朴義琬, 金承化 등을 들 수 있고 金溶範, 朴正愛夫婦는 蘇聯派라고 할 수 있지만 8.15 以前에 蘇聯스파이로 北韓에 드나들면서 活動하다가 金溶範은 日警에 체포되어 投獄되었다가 出獄된 後 방랑생활을 하고 있었다.

蘇聯派는 延安派와 마찬가지로 金日成과 그 一派를 눈아래로 보고 있었으나 金日成에게 北韓權力을 장악하게 하려는 蘇聯當局의 뜻을 正面으로 反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金日成一派와 對立을 피하고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蘇聯派가 權力의 野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고, 機會를 기다리는 姿勢였다고 보겠다.

蘇聯當局이 蘇聯派를 뒤늦게 北韓에 들여 놓은 것은 金日成에게 權力을 장악하려는 計劃에 妨害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蘇聯派가 延安派와 다른 特異點은 延安派가 北韓에 돌아오기 以前에 이미 「獨立同盟」에 의해서 金料奉을 頂點으로 指導體制를 갖추고 있었는데 反해서 蘇聯派는 그렇지 못하고 蘇聯의 各地에 散在했던 者들이 北韓에 들어와 비로서 同系的인 意識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兩派 사이에 또 하나의 중요한 相異點은 延安派가 獨立同盟 傘下에 朝鮮義勇軍을 設置하고 軍幹部를 훈련, 育成하였으며 이로 말미

암아 北韓軍 창설때 그 基幹의 一部를 同派가 占한데 反해서 蘇聯派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北韓軍部에 同派가 거의 참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事情은 後日 派閥間의 權力鬭爭을 暴動하는데 있어서 蘇聯派가 相對的으로 脆弱하지 않을 수 없는 原因으로 되었던 것이다.

다음 金日成系의 正體는 무엇인가? 金日成이 1931년에 中國 共產黨에 入黨했다고 그의 傳記에 記錄하고 있거니와 그의 黨歷과 活動根拠地로 본다면 中共系라고 할 수 있고, 한편 太平洋戰爭이 暴發했던 해인 1941년에 滿州로부터 蘇聯으로 들어가 거기서 軍事・政治訓練을 받고 大尉階級으로 8.15 직후 北韓에 들어왔다는 事實로 비추어 보면 蘇聯系라고도 할 수 있는 者이다.

그러나 金日成一派는 앞에서 言及한바 있거니와 延安派 및 蘇聯派와는 人脈上의 關係가 없을 뿐만 아니라 8.15 후 金日成一派가 하나의 勢力으로 延安, 蘇聯 兩派와 치열한 權力鬭爭을 벌렸든 만큼 特色을 가진 하나의 獨立된 派閥로 보지 않을 수 없다.

金日成系로 著名한 者는 安吉, 崔賢, 金策, 崔庸健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다 中國共產黨員으로서 滿洲에서 抗日遊擊鬭爭을 하다가 1941年頃에 大部分이 日本의 關東軍 討伐에 쫓겨 蘇聯으로 건너간 者들이다. 한편 그들은 8.15 후 蘇聯單政이 金日成을 北韓 共產集團의 頭目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金日成의 隸下에 들어갔었지 8.15 前의 遊擊戰에 있어서는 결코 金日成의 部下가 아니었던 것이다. 金日成의 正體는 아직까지 正確히 구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一派가 初期에 主張했던대로 抗日遊擊隊의 師長(中隊 乃至 大隊規模의 單位)이었다고 하더라도, 例컨데 金策은 南滿에 있었다고 하는 金日成과는 멀리 떨어진 北滿洲에서 活動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崔庸健은 1936년에 金日成과 合流했다는 말이 事實이라고 하더라도 「師」보다 한계단 높은 單位인 軍團의 政治部長이었다고 하는만큼 그가 金日成보다 下位였을 리가 없다.

1950年代이래 金日成이 滿洲의 抗日遊擊隊에서 어떤 地位에 있던가에 대해서는 故意의으로 言及을 回避하고 오직 同遊擊隊의 指導者라고 묘사하는 同時에 맑스·레닌主義黨의 基礎를 이룩해 이 미 닦아 놓았다는 등 그를 英雄化시킨 것은 歷史의 날조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한가지 興味있는 일은 金日成이 1975年 10月10日 勞動黨 創黨30周年에 즈음한 演說가운데서 1936年 10월에 결성한 「打倒帝國主義同盟」이 맑스·레닌主義의 戰略·戰術의 適用 및 맑스·레닌主義黨의 準備에 劃期的인 것이었다고 強調한 點이다. 「打倒帝國主義同盟」이라는 團體의 이름은 일찌기 말한 일이 없는 새로운 것이고 이때까지는 1935年 5월에 組織했다는 「祖國光復會」를 들어 그것은 同年 7月の 靑年大會에서 採択한 反帝人民戰線의 戰略과 그 理論을 反日民族統一戰線에 導入한 것이라고 主張해 왔던 것이다. 31) 例컨데 「祖國光復會」의 結成 日字가 靑年大會의 開催보다도 앞서 後者의 戰略과 理論을, 前者가 導入했다는 것은 矛盾으로 祖國光復會에 관한 主張 역시 造作

된 것이 거니와 이제 와서 「打倒帝國主義同盟」을 새로히 들고 나온 것은 金日成의 이른바 抗日鬪爭史가 날조임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어떻든 1930年代에 滿洲에서 抗日遊擊鬪爭을 했다는 者들이 金日成의 뒤를 이어 北韓에 들어와 金日成의 隸下에 모여 하나의 派閥을 形成하기에 이른 것은 金日成의 權威에 承服해서가 아니라 蘇聯軍政이 金日成을 北韓 共產集團의 指導者로 내세우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만큼 金日成을 옹호하는 것이 自身들의 強者 榮達에 有利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金日成派로 이밖에 主로 國內의 滿洲 사이를 反日運動의 活動舞臺로 하면서 金日成과 接觸이 있었다고 하는 朴金哲 등을 지적할 수 있다. 初期의 「金日成略傳」에 의하면 朴金哲이 主導한 甲山 工作委員會와 金日成이 接觸을 가졌고, 1936年의 普天堡戰鬪는 이 같은 連関과 協力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물론 「金日成略傳」이 대부분 造作된 것인만큼 이를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1967年에 朴金哲이 李孝淳등과 함께 숙청됨에 즈음해서 金日成과 다음과 같은 言爭을 벌였다고 함은 매우 興味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32) 즉 金日成偶像化에 중요한 材料로 利用해온 普天堡戰鬪에 대해서 朴金哲이 普天堡의 日本警察 駐在所에 있는 數名の 警察官을 습격하여 食糧과 武器를 빼앗아 낸 것에 不週하다고 폭로하였다고 하며 이에 金日成은 激怒하여 朴金哲이야말로 日警에 逮捕되어 投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傷處하나 입지 않고 釈放된

것은 日僞에 屈服하여 變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응수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金日成派라고 하더라도 여러 갈래의 親疎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金日成의 權威 및 個人崇拜에 妨害가 된다고 보여지는 者들은 잇따라 權力의 中核으로부터 除去되어 왔다. 이 事實은 金日成의 獨裁權力이 그 派를 結束시키는 唯一한 作用力을 發揮했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金日成이 蘇聯軍政의 庇護를 받지 못하여 北韓 共產集團의 權力을 장악하지 못했든들 金日成派란 形成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끝으로 附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金日成派란 이른바 抗日遊擊隊 出身에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는 點이다. 8.15 직후 金日成이 北韓에 登場했을 무렵에 이미 적지 않은 他派의 사람들을 懷柔에 의해서 自身の 支持勢力으로 들렸거니와 北韓의 派閥版圖는 수시로 變化해 왔다. 뿐만 아니라 어느派의 系譜에도 들어있지 않은 젊은이들을 思想教育과 金日成崇拜運動에 몰아넣음으로써 金日成에 대한 忠誠分子로 만들어 냈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들이 40代의 年齡에 이르러 이른바 新進으로서 北韓權力의 中堅 乃至 中核에 進入하고 있는 것이다.

第3章 南勞黨과 北勞黨

朴憲永, 李承燁 등의 南朝鮮勞動黨의 指導者들은 南韓에서 共產主義

활동이 不法化되고 同時에 地下組織이 거의 다 檢挙되어 더이상 暗躍할 余地를 잃음으로써 1947年頃에 越北하여 北韓의 共產集團과 合流했던만큼 此後에는 北韓의 派閥에 하나가 새로 加算되고 이리하여 北韓權力의 構成은 再編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 以前에도 朴憲永을 中心으로 한 서울의 共產主義者들과 金日成을 비롯한 北韓의 共產主義 各派 사이에 全國的 黨領導權을 에워싼 對立을 보였고 한편 朴憲永一派와 北韓의 金日成系, 蘇聯 延安 및 國內派의 關係는 各各 靚疎의 差異가 있어 복잡하고 미묘한 派閥關係를 이루었다.

서울에서는 解放된 다음날인 1945年 8月16日 鍾路 長安빈딩에서 前身 「서울」系인 李英 鄭栢, 崔益翰 등이 主動이 되어 世稱 長安派라고 불리워진 共產黨을 조직하였으며 이에 대립하며 同年 9月8日 서울 桂洞의 한 民家에서 朴憲永을 中心으로 하는 前身 「火曜會」系 一派가 熱誠者大會를 개최하고 朝鮮共產黨再建準備委員會를 구성하여 共產主義者들의 全國大會를 소집할 것을 결의하였다. 33)

이리하여 兩派는 날카로운 對立을 보이다가 결국 朴憲永派가 승리하여 그의 主導下에 兩派가 合同함으로써 同年 9月11日 朝鮮共產黨의 再建을 宣言하였다. 同黨의 탄생은 北韓共產主義者들, 特히 朴憲永의 影響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朴憲永을 잘 알고 있는, 國內派에게 커다란 鼓舞로 되었다. 한편 کممن 테른以來 共產黨은 一國一黨이어야 한다는 原則이었기 때문에 同年 10月10日에 北韓에서 金日成의 主導에 의해서 조직했다는 共產黨은 北朝鮮共產黨이라고 하지 못하고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이라고 呼稱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서울의 共產黨을 中央으로 認定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後日 金日成이 蘇聯軍이 進駐하고 있었던 北韓에 朝鮮共產黨의 中央을 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朴憲永派의 反對로 그렇게 못했다고 비난했으며 앞에서 言及한바 있거니와 金日成은 1975年 10月 10日 勞動黨創立30周年에 즈음한 演說에서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이라는 말대신에 「北朝鮮共產黨中央委員會」이라고 함으로써 歷史的 偽造를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北朝鮮分局이 언제 北朝鮮共產黨으로 이름을 바꾸었는지 정확한 날자는 分明치 않다. 北韓에서 發刊된 「朝鮮中央年鑑」(1949年版)에 의하면 1946年 1月29日 北韓의 政黨·社會團體 連名으로 발표된 「모스크바」3相會議 決定 支持聲明」에는 아직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의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北朝鮮共產黨」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온 것은 1946年 3月19日 美·蘇共同委員會와 관련된 聲明을 발표했을 때이다.³⁴⁾

그러나 共產黨名과는 관계없이 金日成은 처음부터 서울의 共產黨 中央의 指示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蘇聯軍政에 직속되어 활동했으며 또 蘇聯當局이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北韓의 黨權을 장악하기에 이른 것이다. 어떻든 1945年 12月17-18日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第3次擴大委員會에서 金日成이 처음으로 責任秘書(第1秘書)로 된 것을 起點으로 서울의 朴憲永共產黨과 名實共히 對等한 地位에서 北韓 共產黨을 운영해 나갔다고 보겠다. 金日成이 즉각적으로 北朝鮮共產黨의 이름을 가지고 서울의 共產黨과 對等한 地位로 행세하지 못한 要因 가운데 하나는 北韓內의 國內派의 反對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吳琪燮과 鄭達鉉

등에 一國一黨의 原則을 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金日成에 抵抗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北韓에서는 1946年 7月初부터 北朝鮮共產黨과 新民黨의 合同工作이 시작되었고 同年 8月28부터 30日까지 平壤에서 合黨大會가 開催하고 北朝鮮勞動黨을 創黨하였으며 南韓에서는 그보다 뒤늦게 11月23日 共產黨, 新民黨 및 人民黨의 3黨이 合黨함으로써 「南朝鮮勞動黨」을 創黨하였다.

北韓에서 共產黨과 新民黨의 合黨에 의한 北朝鮮勞動黨은 물론 蘇聯當局의 指示에 따른 것이었으며 두黨의 竝存은 金日成에게 權力을 강악케 하려고 한 蘇聯의 予定에 威脅이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의 大衆의 기반을 획득해야 한다는 命題도 亂脈相을 이루어 實現되기 어렵다고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創黨된 北朝鮮勞動黨의 中央委員會 委員長(黨首)으로는 延安派의 指導者와 金料奉이 추대되고, 金日成과 國內派이지만 이미 蘇聯軍政과 金日成의 편으로 돌아서고 있었던 朱寧夏가 副委員長으로 되었다. 그러나 金日成은 이보다 앞서 1946年 2月8日에 수립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委員長자리에 오르고 있었던 만큼 實權은 그의 손에 강악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測하고 金料奉을 同黨의 委員長자리에 앉은 것은 蘇聯軍政의 構想에 따랐다고 하겠으나 形式上 北朝鮮勞動黨의 指導席을 各派間에 按配했다는 印象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겠다.

한편 南朝鮮勞動黨의 創黨도 蘇聯軍政의 指示에 의한 것으로
러지고 있는데 그 合黨의 過程은 자못 복잡하였고, 曲折을 피할
수 없었다. 그 가장 큰 要因은 北韓의 新民主黨과는 달리 南韓의
新民主黨과 또한 人民黨이 람스·레닌主義黨이라기 보다는 社會民主
主義의 性格을 가졌고, 따라서 朴憲永系의 共産黨과 一體化되기 어려
웠다는데 있었다고 하겠다.

어떻든 1946年 8月 3日 人民黨은 同黨 委員長 呂運亨의 명
의로 人民, 共産, 新民主의 三黨合黨을 提案하는 書翰을 共産, 新民主
兩黨에게 보냈고, 이에 대해서 다음날 4日 共産黨은 同黨 責任秘
書 朴憲永의 명의로, 7日에는 新民主黨이 同黨 委員長 白南雲의 명
의로 각각 合黨을 승낙한다고 회답하였다.

그러나 共産黨內의 反朴憲永派는 三黨 合黨을 반대해 나섰다.
共産黨內部에서 朴憲永一派의 獨善의인 專橫에 反感을 품고 있던
李廷允, 姜進, 徐重錫, 金綴洙, 金樞, 文甲松, 金台榮, 李華俊 등은 그
機會에 朴憲永派 勢力을 견제할 목적으로 우선 共産黨大會를 소집
하여 中央委員會를 改選하고, 合黨問題를 民主的으로 論議한 뒤에 그
可否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叛旗를 들었다.³⁵⁾ 동시에 그들
反 憲永派는 人民黨의 呂運亨과 新民主黨의 白南雲을 三黨合黨의 反
對로 돌려세우려고 工作을 벌였다.

이러한 가운데 人民黨 主流派는 「現段階에서는 美軍政과의 協力과
左右合作을 추진하는 것이 當面의 重大課業」이라는 이유로 合黨에
反對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人民黨 中央委員會는 1946年

8月 16日 多数決로 合黨을 결의하였다. 朴憲永一派가 人民黨에
잠입시킨 푸락치를 동원시킨 結果로 알려졌다. 이때 人民黨首 呂
運亨은 黨首사임의 의사를 表示하였다.

朴憲亨一派의 主導아래 마침내 9月 4日 「人民, 共產, 新民 三
黨合黨。準備委員連席會議」를 개최하고 南朝鮮勞動黨을 副黨하기로
결정서를 採択하였다.

이에 대하여 白南雲, 張燧相等은 그것을 共產黨內 朴憲永一派의
獨斷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朴을 반대하는 人民黨委員長 呂運亨,
新民黨委員長 白南雲, 共產黨의 姜進의 共同 명의로 또하나의 3黨
合黨 決定書를 발표하고 假稱 社會勞動黨 3黨合黨準備委員會를 人
民, 共產, 新民的 3黨이 高루 按配하여 구성하고, 委員長에 呂運亨
副委員長에 白南雲, 姜進을 選출하였다.

이러는 동안 朴憲永一派는 一聯의 악랄한 罷業선동에 이어 46
年 10月 大邱의 이른바 「10月暴動」을 야기시켰는데 國民의 視
線이 그곳으로 集中되고 있는 틈을 타서 11月 23日 秘密會議
끝에 南朝鮮勞動黨을 결성하고 委員長에 許憲, 副委員長에 朴憲永과
李基錫, 中央監查委員長에 崔元沢을 각각 選出하였다.

다음 南朝鮮勞動黨과 北朝鮮勞動黨의 合黨경위를 보기로 한다.
먼저 兩黨合黨의 準備工作으로 1949年 6月 25日부터 5日間에
걸친 南朝鮮民主主義民族戰線과 北朝鮮民主主義民族戰線의 合同會議을
平壤에서 개최하고, 兩戰線이 통합하여 71個의 政黨, 社會團體가
망라되었다고 하는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결성하였다. 이때

「南朝鮮民主主義民族戰線」의 指導層은 이미 대부분 越北해 있었고 組織도 붕괴되어 凶靈團體에 불과한 상태에 있었다.

이어 南北의 「民青」, 女盟 등이 잇따라 統合되고 同年 6月 30日부터 2日間에 걸쳐 南北勞動黨 聯合中央委員會를 열고 南北勞動黨이 合黨함으로써 朝鮮勞動黨으로 完足시켰다.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委員長에는 金日成, 副委員長에 朴憲永과 許歌而(소련派)가 선출되었다.

金日成은 1950年 12月 南北勞動黨 合黨의 意義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半年前에 우리黨이 力量을 더욱 튼튼케 하여 조성된 복잡한 환경에 대처하며, 全黨의 힘을 합쳐 統一的 指導部에서 더욱 威力하게 民主建設을 진행하며 모든 民主力量을 결속하여 광범한 朝鮮勞動大衆을 우리黨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기 위하여 南北朝鮮勞動黨 全體黨員들의 意思를 대표하여 黨을 통일하는 決定的인 聯合中央委員會를 가졌다. 그 結果 우리는 黨의 統一的 中央委員會를 내놓았으며 統一的 黨中央의 指導 밑에 民主的 諸政黨· 團體들과 같이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계속 強力한 鬭爭을 展開하여 왔다」³⁶⁾

南北勞動黨의 合黨은 벌써 平壤에 넘어와 있던 朴憲永을 비롯한 南勞動黨 指導層을 흡수한 것에 불과했지만 南北에 걸친 共產黨의 指導權을 名實共히 장악하려고 애썼던 金日成으로서는 오랜 宿望이 達成된 셈이 되었다.

한편 南北勞動黨의 合黨 및 南北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의 統合은

美軍의 南韓撤収를 발표한 1950年 6月8日 直後の 일로 格別한 그들의 기도가 숨어 있었다고 보겠다. 즉 金日成은 이미 노리고 있던 南侵戰爭의 도발을 최종적으로 決心하고 南北勞動黨의 合黨등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當時 金日成의 戰略은 北으로부터 奇襲南侵을 감행하고 南韓內에 朴憲永의 南勞黨이 潛伏시켜 놓았다고 믿고 있던 地下組織의 崩기로 호응을 얻어 短期에 赤化統一을 이룩하겠다는 것이었으며 그러자면 朴憲永一派의 積極적 協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休戰後 金日成이 朴憲永一派를 숙청하고 나서 北韓軍의 南進에 南韓의 後方으로부터 전혀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朴憲永이 있다고 했던 50萬黨員의 地下組織網은 허위였다고 비난한 것은 그러한 事情을 示唆해 주고 있다. 37)

第 4 章 肅 清 의 序 幕

才 1 節 金 日 成 의 登 場

蘇聯軍이 平壤에 進駐하여 正式으로 「北朝鮮駐屯蘇聯軍司令部」를 설치한 것은 1948年 10月 25日이었다. 司令官은 蘇聯 才 25 軍 司令官 치스차코프大將이었고 그 兵力은 20萬 乃至 30萬으로 推算되었다. 우선 스탈린이 우리나라에 품고 있던 野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탈린은 才 2 次大戰이 끝나기 直前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유고슬라비아의 副統領이고 軍에 共產獨裁에 抵抗한 밀로반·질라스에게 「領土를 점령하는 者는 그 누구나 그의 軍隊가 할 수 있는 限 自己自身の 社會制度를 거기에 構築하기 마련이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하는데³⁸⁾ 그의 이러한 野心에 北韓이 例外가 될 수 없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北韓에 進駐한 蘇聯軍司令部의 되풀이된 宣伝 「붉은軍隊는 소비에트 秩序를 設定하거나 또는 朝鮮地域을 얻으려는 그런 目的을 가지지 않았다」느니 또는 「우리의 目的은 人民들의 解放鬭爭에 있어서 그들을 방조하며 다음에는 그들이 自己所願대로 自己땅에서 自由로운 生活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등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蘇聯은 韓半島에 대한 이같은 野心을 가지고 그의 代弁者 및 앞잡이로 金日成을 選定한 것이다. 그 選定資格은 共產主義理論에

받고 共產政權의 領導者的 資質을 구비하고 있는나에 보다는 蘇聯에 얼마나 忠實하고 獻身的이나에 두었다고 보겠다.

金日成은 蘇聯將校服을 입고 平壤에 蘇聯軍司令部를 설치하기 以前에 잠입한 것으로 보아지고 있는데 그가 처음으로 얼굴을 나타낸 것은 蘇聯軍政의 指示로 曹晚植씨가 영도하는 平南建國準備委員會를 解体시키고 8月 27日 民族陣營과 共產側으로 接配하여 構成한 平南人民政治委員會를 組織한 直後 曹晚植씨를 비롯한 同委員會 委員들 앞이라고 한다.

그러나 金日成이 堂堂 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北朝鮮駐屯蘇聯軍司令部」의 民政司令官 로마넵코少將의 案内와 소개로 첫선을 보였다고 한다.³⁹⁾ 이때 金日成의 나이는 겨우 33세이고, 民族陣營人들은 勿論이고, 平南政治人民委員會에 參加한 玄俊赫을 비롯한 共產主義者들 가운데서도 그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北韓當局이 後日에 밝힌 바로는 1945年 10月 10日부터 13日까지에 非公開로 열린 「北朝鮮共產黨 北朝鮮五道責任者 및 黨幹部大會」에 金日成이 처음으로 公式登場했다고 하며, 이 모임이 있을 이틀날인 10月 14日 「金日成將軍歡迎 平壤市 群衆大會」가 열렸다. 이 大會 역시 蘇聯軍政의 스케줄에 의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여기서도 로마넵코蘇聯民政司令官이 金日成을 案内하고 群衆에게 소개하였다. 大會에 모인 사람들이 老將軍 金日成이 아닌 30代의 초라한 金日成 即 本名 金成柱 또한 金英煥을 보고 얼마나 놀래고 失望했는지 想像할 수 있겠다.

당시 「平南民報」 편집국장으로 金日成의 옆자리에 앉아서
하였고, 後에 「民主朝鮮」(北韓內閣機關紙) 主筆로 있다가 自由大韓
에 넘어와 反共運動에 적극가담한 故 韓載德씨가 이날의 光景을
적은 手記를 소개하기로 한다.³⁹⁾

[…… 이윽고 로마넵 코少將이 이날의 主人公 金日成이라는 사나
이를 마이크 앞으로 내세우며 한번 다시 그를 英雄이요 愛國者요
指導者라고 되풀이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拍手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라 拍手 환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많은 사
람들은 어리둥절하여 프로그램대로 花環증정이 연출될때 조차 拍手
칠 것을 잊고 있었다. 그것은 金日成이라고 소개된 사람에 그들
이 기대하던 그런 金日成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
이다.

우리들 몇 몇 사람들은 이미 앞서 그를 만나본 일이 있었지만
이제 그를 처음 보는 일반 市民들에게는 일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 억지로 없는 위협을 보이려 하나 촌티를 벗지
못한 어색한 태도로 마이크 앞에 나타난 金日成은 들고나온 원고
를 내리 읽었다. 그것은 분명히 外國語 말을 번역한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서툴게 번역한 것이었다. 그것을 또 서툴게 읽었다.
그 내용이 또 문제였다]

金日成의 演說內容은 이렇듯 그 自身の 所信이 아니라 蘇聯當
局이 作成한 씨나리오를 그대로 읽어내린 것으로, 스탈린을 찬양하
고 蘇聯軍을 해방자라고 주장한 것이 主要한 줄거리였고, 同時에

[努力있는 사람은 努力으로, 知識있는 사람은 知識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民主國家의 昌進을 위해서 各階 各層이 總 단결할 것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즉 처음으로 平壤市民 앞에 登場한 金日成은 蘇聯當局이 시키는대로 아직은 共產主義者라는 正體를 노골적으로 밝히는 대신 民族的 立場에 선 愛國者로 가장하였던 것이다. 金日成의 이같은 첫 宣言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가는 이윽고 共產主義者라는 本色를 公公然하게 드러내 놓음으로써 強行한 反民族的, 反民主的 暴壓政治를 실시하는 가운데서 여지 없이 폭로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才 2 節 玄俊赫의 暗殺事件

金日成의 肅清史에서 序幕을 열어놓은 것은 共產主義者 玄俊赫을 줄개를 시켜 백주의 大路에서 暗殺한 事件이다. 어찌서 玄俊赫부터 손을 내는 가는 當時의 事情으로 미루어 너무도 分明하다고 하겠다.

玄俊赫은 竹川出身의 共產主義理論家로 日帝때부터 이름이 알려져 있었으며 日本警察의 轉向者收容所인 大和塾에 끌려다니다가 8.15를 맞았다. 해방 直後 玄俊赫은 서울에서 朴憲永과 가까이 하다가 平壤에 나타나 朝鮮共產黨 平南地區 責任者가 되었고 平南人民政治委員會에서는 曹晩植委員長 밑에서 副委員長으로 있었다. 玄은 맑스主義者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蘇聯軍政의 使狀을 받고

있었던 金日成과는 政治的 見解와 所信이 크게 對立되고 있었다. 玄은 日帝植民地에서 해방된 이 나라가 나갈 길은 이른바 투볼레타리아獨裁 또는 一黨獨裁가 되어서는 안되고 우선 불조아 民主主義的 革命이어야 하며 따라서 참다운 民主 民族聯合政權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바꾸어 말해서 玄도 궁극적으로 共產主義로 나아가 한다는데는 勿論 異議가 있을 수 없는 共產主義者였으나, 그러기까지에는 불조아 民主主義革命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고, 이 단계에서는 政黨 共產黨이 政權을 独占할 것이 아니라 名實共히 共產黨과 民族障宮이 衡平하게 참여하는 聯合政權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才2次大戰의 終末을 前後하여 蘇聯軍이 進駐한 東歐諸國에서도 이미 實現되고 또한 앞으로 수립할 政權의 性格과 形態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에워싸고 共產主義者들 가운데 세찬 論爭이 벌어졌는데 玄俊赫의 以上과 같은 主張은 初期東歐諸國 共產主義 指導者들의 見解와 大體로 흡사함을 찾아 볼 수 있다.

東歐의 共產主義理論家들은 東歐諸國에 民主政黨이 共產黨과 함께 참여 함으로써 나타난 政權을 투볼레타리아獨裁도 아니고 불조아政權도 아닌 特異한 것이라고 하여 人民民主主義 (Peoples democracy) 라고 불렀는데 同政權의 性格에 關係해서 불가리아 共產黨首 지미트로프는 다음과 같이 主張하였다. 「불가리아는 소비에트共和國이 아니고 國民의 대다수인 노동자, 농민 手工業者 및 인테리겐차가 指導的 役割을 하는 人民共和國이다. 이 나라에는 어떠한 形態의

獨裁도 없다. 41)

또한 民族主義的 偏向이라고 모스크바로부터 세찬 공격을 받은 폴란드 共産黨首 고몰카는 「人民民主主義의 政治權力을 노동계급의 영도에 의한 民族的, 民主主義的 諸階級의 聯合으로 行使된다」고 주장하였고 때문에 「폴란드 勞動者黨(共産黨)을 多政黨的 傾向이 있다면가, 다른 民主的 政黨에 굴복하려고 한 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반박했으며 나아가서 「社會變革의 改革의 方法과 社會主義的 秩序에로의 改革的(革命的이 아닌)으로 나아가는 것은 完全히 可能하다」가 까지 斷定했다.

하기는 이러한 東歐의 人民民主主義論을 이윅고 모스크바의 壓力으로 말미암아 「人民民主主義는 資本主義 要素의 清算과 社會主義 經濟의 組織을 위해서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機能을 成功的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바꾸어지지 않을 수 없었으나 北韓에서는 東歐의

은전한 人民民主主義論과 內容이 大同小異한 玄俊赫의 불조아 民主主義革命論이 可否의 討論에 불려지지도 않고, 暗殺의 대상으로 되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玄俊赫은 北朝鮮 共産黨을 서울의 共産黨 밑에 들 것이 아니라 따로 獨立시켜야 한다는 - 金日成의 所望에 대해서도 一國一黨의 原則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早速한 統一 獨立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될 이 나라의 情勢에 비추어 보더라도 不當한 變事라고 하여 反對했으며, 한편 北韓에 全國을 共産化할 수 없는 革命基地를 構築해야 한다는 金日成의 이른바 「民主基地」路線에 대해서 贊同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같은 玄俊赫의 存在는, 金日成과 또한 蘇聯軍政에게는 눈앞의
가시갈았고, 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金日成이 나갈 길이 막혀 있
을 수 없었으며 同時에 蘇聯當局이 이미 짜놓은 北韓共產化의 里
程表가 蹙跌을 招來한다고 생각했다고 보겠다. 蘇聯軍政과 金日成
은 玄俊赫을 說得, 회유하려고 試圖하였고, 그것이 奏効하지 못하
자 脅迫·恐喝을 거듭했으나 玄은 所信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마침내 玄俊赫은 暗殺을 당하고 말았다. 1945年 9月(日字未
詳) 대낮 玄은 曹晚植씨와 함께 로마넵코司令部에 불리어 갔다.
貨物自動車 앞간에 타고 平壤의 中心街인 平壤市庁 앞 大路로 돌아
오는 길에 갑자기 車에 뛰어오른 亦衛隊服을 입은 怪漢에게 2發
의 흉탄을 맞고 쓰러졌다.

玄俊赫을 누가 어디서 죽였는가는 公式적으로 밝혀진바 없다.
그러나 그 犯行을 計劃한 자는 金日成이고, 下手人은 張時雨가 틀
림없다고 믿어지고 있다. 張은 玄俊赫과 같이 日帝時代에 大和塾
生活을 하였고 本來 間島共產黨員으로 「間島暴動」에 參加하여 10
年の 징역을 살은 자이며 無識한 過激派이고 出世慾에 불타고 있
었다.

張은 日帝時의 大和塾때부터 玄俊赫과 사이가 매우 나빴다 하며,
해방후 玄이 서울에 올라와 「朝鮮共產黨 平壤地區黨部」를 조직하
자 北韓의 거의 모든 共產主義者들은 여기에 몰려 들었음에도 不
拘하고 張은 끝내 玄을 반대하여 「朝鮮共產黨 平壤市黨部」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玄을 敵對했다. - 그러는 가운데 蘇聯軍이 들어와 軍政의 道具로 「平南人民政治委員會」를 組織하자 張은 이에 아부하여 事業部長의 職을 自願하여 맡게 되었으나 그의 「朝鮮共產黨 平壤市黨部」는 玄의 「平南地區黨部」에 통합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玄에 대한 張의 敵對感을 일층 커지고 있었다. 金日成은 바로 이러한 張時雨를 玄俊赫 暗殺의 下手人으로 教唆한 것이다.

金日成이 玄俊赫 暗殺의 主役이라는 事實은 前記 韓載德씨의 手記가 잘 말해주고 있다.

「…… 그러나 얼마 안가서 우리는 모든 事實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당시 「로마넝코」司令部의 高級通譯官으로 있던 蘇聯 2世 俞在日이 술 취한 김에 그 事件의 내막을 자랑삼아 털어놓은 것이 퍼지게 된 것이다. 俞在日이 드러낸바에 의하면 하루는 로마넝코少將室에 金日成, 金策, 金鎔範과 張時雨등이 찾아 와서 玄俊赫 처리에 관한 秘密會談을 했는데 그 때 이들 4명은 결국 玄을 없애는 非常手段 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로마넝코등 蘇聯人측은 後日을 염려해서였는지 처음에는 상당히 주저하였는데 金日成등은 집요하게 그 暗殺計劃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⁴²⁾

이렇듯 金日成一派의 요청에 蘇聯軍政當局은 처음에 그렇게까지 할 必要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고 보겠으나 蘇聯측에게도 北韓 共產化의 스케줄에 玄俊赫이 크고 작은 하나의 장애로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인만큼 그의 暗殺計劃을 승인하기에 이르렀으며, 下手

人的 責任을 맡은 張時雨에게 「실수 없이 하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俞在日은 後日 秘密을 發說했다는 問責으로 蘇聯에 소환되었고, 다시 시베리아로 流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金日成一派와 蘇聯軍政當局은 玄俊赫의 暗殺을 民族陣營에서 저지른 白色테러로 偽裝시키려고 꾀했다. 이리하여 「白色테러를 打倒하자」는 口號를 大的으로 외치고 성대한 社會葬으로 乙密台入口에 玄의 山所를 금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와 期瞞劇은 통하지 않았다. 玄俊赫의 暗殺은 金日成一派와 蘇聯軍政當局의 共謀로 감행되었다는 소문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犯行의 手法이 서툴어 黑幕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點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當時의 北韓 情勢로 보아 玄俊赫을 暗殺할 者는 金日成一派를 배놓고는 없었던 것이다.

張時雨는 玄俊赫을 暗殺하는데 成功했지만 蘇聯軍政當局은 期瞞劇의 馬脚이 드러나 도리어 自身の 威信을 損失시켰다고 評価했는지 張을 爽權없는 閑職인 「北朝鮮消費組合, 委員長으로 左遷시켰다.

그러나 後에 金日成內閣이 들어서자 商業相에 登용되고, 陸軍中將의 肩章을 달아준 일이 있었으나, 金日成의 肅清史에 共通的 現象이 거니와 金日成에게 致命的 秘密을 알고 있는 張은 이윽고 肅清되고 말았던 것이다.

金日成이 玄俊赫 暗殺의 主犯이라는 것은 數年後 玄의 乙密台入口 舊地를 파헤쳐 어디론지 옮겨버리고 말았고 또한 玄을 反黨宗派分子로 烙印적은 事實로도 다시 立証시켜 주고 있다고 하겠다.

才 3 節 国内派 肅清의 開始

金日成은 国内派 巨頭인 玄俊赫을 白昼의 暗殺이라고 하는 殘忍한 手法으로 除去했으나 그의 獨裁權力 鞏固에는 아직도 難關이 逢着되고 험한 路程이 예측되고 있었다. 勿論 東歐諸國에서 그랬던 것 처럼 北韓에 進駐하고 있었던 蘇聯軍司令部의 적극적 比護가 金日成의 權力鬭爭에 不可決의 背景으로 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척어도 6.25 南侵前까지는 金日成의 肅清行脚은, 蘇聯軍政當局의 事前承認 乃至 指示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關係로 金日成의 肅清手法은 스탈린의 그것을 導入했음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例컨대 스탈린이 그의 두려운 政敵 키로프를 1934 年에 暗殺해 놓고 그것을 白色테러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事件을 보다 큰 肅清의 嚆矢로 이용한 手法을 金日成의 玄俊赫 暗殺事件에 거의 그대로 導入하겠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蘇聯軍政當局의 發想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金日成의 立場 으로서는 蘇聯으로부터의 信任을 잃게 되면 그의 執權野望은 水泡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만큼 蘇聯軍政當局의 눈치를 살피고 또 아부하면서 北韓을 衛星國化하려는 蘇聯의 里程表를 보다 忠實히 그리고 보다 빨리 實現시키려고 狂奔했으며 이러한 가운데서 金日成의 肅清劇은 橫暴하고, 反民族的으로 얼룩졌던 것이다.

金日成이 玄俊赫을 暗殺로 除去시킨 事件은 그의 눈안의 가시를 제거 버린 것과 같았다고 하더라도 国内派를 비롯한 北韓共產主義者들에게는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즉 北韓共產主義者들 사이에서는 金日成이 어떤 爲人인가에 관해서 아직도 궁금증을 못풀고 있었다고 하면, 事件으로 金日成이 民族的 立場을 아예 저버린 蘇聯의 앞잡이일 뿐 아니라 權力의 野欲을 위해서는 背信과 殘認無道한 테리도 서슴치 않는 者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爾濟은 国内派를 비롯한 北韓共產主義者들이, 金日成一派를 보다 警戒하고 그와 對決意識을 강화케 하는 動機로 되었다고 보겠다. 다시 말하면 玄俊赫 暗殺事件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各派가 서로 단결하여 共產黨權力의 指導體系에 集合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 相互 不信과 警戒가 깊어 짐으로써 流血의 派閥鬭爭을 展望케 했다는 것이다.

金日成은 玄俊赫을 暗殺한 다음 国内派의 포섭공작에 着手했다. 포섭의 가장 主要한 對象은 咸鏡南北道에서 必死的인 組織工作으로 勢力을 크게 확장하고 있었으며 日帝時부터 상당한 鬭爭經歷을 가졌고 共產主義 理論에도 밝은 이른바 国内派 共產主義者들이었다. 그 主要人物로는 吳琪燮, 朱寧夏, 李舟河, 鄭達鉉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서울의 朴憲永과 連結을 가지고 있었으며 金日成에게는 이 점을 가장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咸鏡道에서는 8.15 해방후 地下에서 나온 共產主義者들과 그 同調者들이 「吳琪燮萬歲를 부르고 그를 北韓共產黨 組織의 指導者

로 받들고 있었다.

金日成은 먼저 吳琪燮을 說得시켜 自身の 隸下에 넣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吳는 一國一黨의 原則을 들고 北韓이 서울과 分離된 單獨 共産黨을 組織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뿐만 아니라 玄俊赫의 暗殺事件으로 金日成이 어떤 爲人인지 드러나고 있었던 만큼 金日成을 경멸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蘇聯軍政의 強權이 동원 되기에 이르렀다. 蘇聯軍警備司令部 司令官이 吳에게 說得工作과 함께 威脅으로 壓力을 가했다. 그래도 吳는 굴하지 않자 로마넵코 民政司令部 司令官이 그를 平壤으로 불러 金日成과 同席시켜 서로 협조하도록 권고했다고 한다.⁴³⁾ 吳는 여기서도 頑強하게 버티다가 끝내는 北朝鮮共産黨 才2 秘書의 자리를 주고 동시에 自身の 見解를 존중해 준다는 條件으로 妥協에 應하고 말았다. 吳의 이때의 本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金日成을 共産黨지도자로 마음 속으로 받들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은 後日 金日成에 대한 그의 抵抗으로 보아 分明하다고 하겠다.

이리하여 吳琪燮이 金日成의 손에 의해서 齟齬될 것은 누구나 予測할 수 있는 일이었고 오직 時間문제였다. 黨會議에서 빈번히 金日成一派는 吳의 이른바 過誤를 찾아 공격하기를 서슴치 않았으며 심지어 그를 「民族主義的 転落分子」 또는 「트로츠키의 左傾分子」라고 비난 하였다.

마침내 吳琪燮은 1946年 初 共産黨 才2 秘書의 자리에서 追放되고 그해 2월에 수립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宣傳部長으로 左遷되었다. 그러나 吳는 金日成一派의 壓力에 굴하지 않고 共産主

義理論家로서의 能力을 大衆 앞에서 誇示함으로써 北韓共產主義者들 가운데서의 人氣는 더욱 높아갔다. 이같은 吳에 대한 金日成一派의 迫害는 公開的으로 또는 隱然中에 加重되었다. 그런데 金日成一派가 吳를 다시 한번 利用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생겼다. 金杓奉을 비롯한 延安派가 뒤늦게 北韓에 들어와 조직한 新民黨과 金日成의 共產黨의 合黨大會가 1946年 8月 28日부터 3日間 개최되었는데 이때 金日成一派는 自身の 能力不足으로 말미암아 吳琪燮을 代弁者格으로 내세우기로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吳는 同大會에서 主席團의, 一員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며, 果然 8月 29日 吳의 演說은 거기서는 누구도 追從을 不許할 만큼 共產主義 理論이 整然할 뿐만 아니라 雄弁이었고 場內를 壓倒했다고 한다.⁴⁴⁾

그후에도 吳琪燮이 金日成의 비위에 가장 거슬린 點은 그가 金日成의 權威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自己의 눈아래로 보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지고 있다. 前記 共·新 合黨大會가 있는 直後 吳琪燮은 重用되기는 커녕 宣傳部長으로부터 勞動部長으로 다시 左遷되고 말았다. 北韓 共產集團內에서는 共通的인 現象이 거니와 左遷에 左遷의 終車駅은 肅清이 있을 따름이다.

1946年 11月 北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가 소집되었다. 이會議는 바로 吳琪燮을 肅清할 목적으로 연 것이며 奇襲的으로 「吳琪燮의 左右傾의 過誤에 대하여」라는 議題를 올렸다. 이때 金日成에 懷柔되고 있던 朱寧夏가 吳를 공격하는 主役을 맡았다. 朱는 지난날 吳의 部下였다. 이것도 金日成의 肅清手法의 하나이다.

即 肅清하겠다고 생각한 者에 대해서 되도록 自己의 直系를 動員시키지 않고 敵과 親近했던 者로 하여금 공격의 화살을 날리게 한다는 것이다.

吳琪燮의 過誤로 問題삼은 것은 北朝鮮勞動黨 機關紙 「勞動新聞」에 게재된 그의 論文내용이었다. 이 論文의 要旨는 「職業同盟은 勞動者의 唯一한 組織體이기 때문에 최후까지 勞動者의 利益을 代弁하는 機關이 아니면 안된다. 지금 北朝鮮에서는 經濟 및 産業 機關이 모두 國有化되고 있지만 여기서 일하는 勞動者들의 利益은 職業同盟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經濟 및 産業 機關이 國有化되었다는 이유로 勞動者들의 利益이 無視되는 일이 있으면 職業同盟은 그러한 職場과 鬭爭하여 勞動者의 權益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吳琪燮의 이같은 主張이 맑스主義 理論에 비추어 妥當性이 있고 없고間에 共產獨裁下의 現實과는 너무도 등떨어진 것이 있으며, 其末 蘇聯에서도 그러한 理論은 共產黨의 統治 및 組織原理와 어긋난다고 하여 새찬 論爭끝에 排斥된 바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朱寧夏의 反駁要旨는 「吳琪燮은 資本主義社會의 勞動組合 理論을 社會主義的 所有로 바꾸어진 北朝鮮의 工場과 鎭山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北朝鮮 勞動者들의 鬭爭對象이 마치 國有化된 經協 産業 機關인 것 같이 吳琪燮은 主張하고 勞動者들을 선동하였다. 北朝鮮 勞動者들은 國有化된 經濟 産業 機關을 상대로 鬭爭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⁴⁵⁾

이렇게 論爭이 벌어졌는데 吳琪燮은 다시 「레닌」選集을 가지고 나와 自己의 主張이 레닌의 理論과 어긋나지 않음을 하나 하나 証明하려고 했으며, 自己의 主張을 반대하는 主張이 바로 反 맑스·레닌主義이라고 断定하고 『나를 「트로츠키」主義로 물려고 하는 本心이 무엇이냐』고 反問하였다.

司會者인 金料奉(延安派)은 難隱한 表情을 지었으며 場內는 緊張되고 있었다. 이때 北朝鮮勞動黨 中央委員 兼 內務相이고, 後日 金日成의 權威에 승복하지 않았다가 肅清된 朴一島가 緊急動議로 演壇에 올라와 「우리들은 그 論文에 대해서 아직 檢討한 바 없다. 執筆者와 批判者의 論爭만 듣고는 是非를 가릴 수 없다. 論文을 檢討하기 위한 委員會를 組織할 것을 제의한다」고 發言하였다. 그러나 金日成은 懷疑를 감추지 못한채 演壇에 올라와 「檢討委員會는 必要없다. 吳琪燮은 土地改革을 지도하라고 北靑에 派遣했는데 自己 마음대로 土地改革을 해버린 反黨分子이다. 吳는 확실히 自由主義的 害毒分子이다. 그는 勞動部長의 職責을 망각하고 되지 못한 論文을 新聞에 發表하여 勞動者들을 그릇되게 선동한 것은 容당 黨이 그의 責任을 추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問題를 가지고 더 이상 論爭을 벌일 必要가 없다」고 말하고 이 問題를 黨中央委員만의 모임에서 別途로 처리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이리하여 會議는 閉會되었다.

그後 金日成은 吳琪燮을 黨으로부터 追放할 機會를 잡으려고 했으나 情勢가 如意치 못했든지 離黨만은 보류하고 모든 職責으로부

解任시킨채 党中央委員으로만 놓아 두었다. 吳가 이러한 처
 지에서 河等の 發言權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監視와
 內查가 그를 뒤따랐다. 그러다가 吳는 1956年 4月の 勞動黨
 才3次大會에서 다시 同黨 中央委員會 委員으로 등용되고, 同年 5
 月에는 收買權政相에 취임되었다. 吳의 이러한 「奇蹟」은 1956
 年 2月 蘇聯共產黨 才20次 大會에서 스탈린의 暴政과 個人崇拜가
 世차례 비판된 影響이었다. 즉 金日成은 蘇聯에서의 그같은 비판
 이 北韓內의 自己에 대한 反對派를 鼓舞시킴으로써 그의 權力이
 위태로와 질 것으로 보고, 갑자기 金日成偶像化운동을 中斷시켰거니
 와 一時的으로나마 尤화적 태도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金日成이 가장 두려워한 政敵 延安派와 蘇聯 2世派이었으며 따라서
 國內派 吳琪燮을 다시 懷柔로 포섭하는 것은 以上 兩反對派와의
 對決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1956年 8月과 9月 延安派가 蘇聯 2世派와 合勢하여
 反 金日成運動을 展開했을 때 吳琪燮은 거기에 가담하지는 않았으
 나 同情的이었다 하여 過去の 「過誤」와 결부시켜 党中央委員會
 委員과 함께 收買權政相 職으로부터 追放되고 말았다. 그후 그는
 1958年 4月 平安南道 中和郡 農業協同組合 副委員長으로 쫓겨고
 이우고 投獄되었다.

이리하여 北韓共產集團의 權力鬭爭 및 金日成의 肅清史에의 國內
 派의 巨物 吳琪燮의 幕은 내려지고 만 것이다.

다음은 朱寧夏이다. 그는 앞에서 言及한 바 있거니와 本來 威

南이 吳琪燮과 鄭逵鉉 밑에서 共產主義運動에 중사하였던 者이다.

그러나 金日成一派의 懷柔工作에 吳琪燮이 오래 동안 頑強하게 応하지 않은데 反해서 朱寧夏는 金日成派에 즉각 가담하였다. 그의 이 같은 背信은 出世慾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金日成은 그를 自身の 품안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吳琪燮을 궁지에 몰아 肅清하는데 앞잡이로 이용할 수 있었다.

金日成은 1946年 8月 共產黨과 新民黨의 合黨에 의한 北朝鮮 勞動黨 創立 大會에서 朱寧夏를 自己와 함께 同黨 中央委員會 副委員長 자리에 앉혔다(委員長은 金枋奉) 이리하여 朱는 金日成에 아부하기에 안간 힘을 썼으며 吳琪燮을 비롯한 國內派를 去勢하고 肅清하는 陰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마치 1956年에 金日成이 延安派 金昌滿을 시켜 同派의 指導者들을 肅清하는데 主役을 맡게 한 것과 흡사하였다.

그러나 金日成의 눈에는 어디까지나 黑色分子라고 보이고, 언제 自身の 權力에 도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던 朱寧夏를 오래 突權있는 자리에 놓아 둘리는 없었다. 결국 1948年 8月 金日成一派는 朱寧夏를 宗派主義 및 英雄主義라고 烙印을 찍고 勞動黨의 中核으로부터 追放하고 말았다. 즉 朱는 黨中央委員會 副委員長 자리를 이용하여 自己와 가까운 者들을 적지 않게 要職에 등용했으며 宗派를 만들어 黨權을 独占하려고 꾀했다는 問責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朱를 즉각 肅清하기에는 그의 罪目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희박하였고, 또한 이 때만 하더라도 延安派 및 蘇聯派등 金日成의 反對派 勢力에 정

평하여 階級은 一定한 牽制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朱寧夏는 1948年 9月 金日成의 初代 內閣에 交通相 자리에 취임할 수 있었으나 이윽고 蘇聯大使로 左遷되었다. 當時 蘇聯大使館은 平壤駐在 蘇聯大使가 蘇·北韓의 거의 모든 分野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連絡事務所에 불과한 閑職이었다. 그러나 朱의 蘇聯大使職도 오래가지 못하였다. 이윽고 平壤에 소환되어 輕工業省의 한 管理所 支配人으로 추방되었고 1953年 8月에는 朴憲永 李承樺一派의 反金日成구테타 陰謀에 관련되고 同派가 새로 構成하려고 한 內閣의 副首相에 朱寧夏의 이름이 올라있었다. 하여 결국 工場 勞動者로 追放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金日成의 權力集團에서 國內派의 巨頭들은 하나 들쭉 자리를 감추고 말았다.

註 釈

1. 「韓國의 共產主義와 北韓의 歷史」 p.199. 韓載德著, 内外文化社刊.
2. 「근로자」(朝鮮勞動黨 理論誌) 1966.10.20号, 1966.10.5 勞動黨代表者會에서의 金日成演說.
3. 1963.10.28 字 「勞動新聞」(勞動黨機關紙), 社說 「社會主義 陣營을 옹호하자.
4. 1966. 8.12 字 勞動新聞 論說 「自主路線을 옹호하자」
5. 「金日成을 告發한다」韓載德著, 内外文化社刊
6. 레닌選集, 日語版, 才10分冊, p.60.
7.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 社會體制」北韓科學院 經濟, 法學研究所編 (在日 朝鮮人科學者協會 社會科學部門法政部會 記) p.113. 日本評論社 刊.
8. 「레닌主義諸問題」, 스탈린著: 日語版, 田中順次訳, p24-28
9. 前掲「레닌選集」 才23卷, p.250, 才31卷, p.126.
10. 「蘇聯邦의 國家機構」, 谷川良一, p.137-138.
11. 스탈린選集(日語版) 8卷, p.60.
12. 前掲書, p.95.
13. 前掲「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 社會體制」, p.121.
14. 前掲書, p.126-127.
15. 前掲書, p.154.

16. 前掲書, p.161.
17. 北韓發行 「朝鮮中央년감」(1949年 版), 「北朝鮮日誌」 10月 23日項目
18. 平壤放送, 1975.10. 9.
19. 「근로자」1965. 10. 20号, 労働党創立 20周年에 즈음한 金日成의 演說.
20. 1970年 1月, 労働党人民軍党擴大全員會議에서의 金日成의 結論演說.
21. 「北韓政權의 暗闘相」内外問題研究所刊, 1966.6
22. 「朝鮮共產主義運動의 起源」 p.2, R.A. 스카라피노·李延植共著, 韓国研究圖書館 訳刊.
23. 前掲, 韓국의 共產主義와 北韓의 歷史」 p.66
24. 前掲書, p.68
25. 「콤민테른文獻集」, 朝鮮總督府刊, p.584
26. 「左翼事件実録」 1卷, p.85, 大檢察庁 捜査局.
27. 前掲 「韓국의 共產主義와 北韓의 歷史」 p.194
28. 1958年 3月, 労働党 才1次代表者會議에서의 金日成演說
29. 越南者の 証言
30. 「근로자」, 1965. 10. 20号, 労働党創立 20周年에 즈음한 金日成演說.
31. 1935年 7月, 콤민테른才7次大會에서의 지미트로프의 反파시즘 人民戰線에 관한 演說.

32. 越南者の 証言.
33. 前掲 「左翼事件実録」, p. 23-24.
34. 前掲 「韓國의 共產主義와 北韓의 歷史」, p.202.
35. 前掲 「左翼事件実録」 p.284-285.
36. 1950. 12. 4. 労働党 中央委員会 才3次全員會議에서 行한 金日成演說.
37. 1953年 8月 労働党中央委員会 全員會議에서 行한 金日成演說.
38. 밀로반·질라스著 「스탈린과의 對話」 黎明文化社, 韓國語版.
p.100.
39. 前掲 「金日成을 告發한다」, p.54.
40. 前掲書, p. 65-67.
41. 「北韓30年史」 p.70-71. 兪完植·金泰瑞共著, 現代經濟日報·일
요신문社 共刊.
42. 前掲 「金日成을 告發한다」 p.128.
43. 「北韓政權의 暗闘相」 p.92-93. 内外問題研究所 刊
44. 前掲書, p.94-98.

